

THE GLOBAL  
AGRO-INFORMATION

국제농업소식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2008 April

NO.83



THE GLOBAL  
AGRO-INFORMATION

# 국제농업소식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2008 April

NO.83



농림수산식품부  
국 제 농 업 국

# Contents

2008. April, No.83  
THE GLOBAL AGRO-INFORMATION

---

## 주요 통상 쟁점

- FTA 농업협상 동향에 대하여 03
-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13

---

## 세계농업 흐름 분석

-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23
-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및 동향 55
- 국제 곡물가 급등과 바이오연료 문제 75
-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 시스템 개관 87
- 2007-2014 EU농산물 시장 및 농가소득 전망 97
- 뉴질랜드 농업개혁 101

---

## 특별기고

- 향후 10년 유럽식품 및 육류산업에 대한 도전 109  
- 제2차 OECD 세계식품경제회의 발표글 중에서 -

---

## 해외 농업현장 방문 후기

- 총리 자원외교관련 사전준비출장을 다녀와서 115
- FOOD EX JAPAN 2008 참관기 141

---

## 해외농업 · 통상 기사 요약

- 북미지역 농업관련 보도내용 159
  - THE NEW YORK TIMES 161
-

## 주요 통상 쟁점

### 1. FTA 농업협상 동향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기술서기관 정종용

### 2.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다자협상과 사무관 강민철



TV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TV is not reality. In reality, you should begin your work after drinking coffee.

# FTA 농업협상 동향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기술서기관 정종용

우리나라에서의 FTA 추진은 1998년 11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주요 국가들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외신인도 제고, 기존 수출시장 확대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FTA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과 FTA를 기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아세안과는 상품분야 협상이 타결되어 '07.6.1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거대 경제권중의 하나인 미국과의 FTA도 '07.4.2에 타결하고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EU, 인도,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일본과는 상품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04년 11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이후 중단된 FTA 협상 재개 문제를 서로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걸프협력위원회(GCC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와도 금년 중에 FTA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는 FTA 공동연구를 완료 하였으며, 중국과는 '07년 3월부터 양국간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금년 상반기 중 종료할 예정이고, 호주·뉴질랜드와는 '07년에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금년 4월중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FTA 농업협상 동향은 다음과 같다.

## 1. 한·아세안 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는 '05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협상 이외에 열린 원산지 협상, 관세 및 원산지 이행위원회 등을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횟수가 진행된 셈이다.

아세안 연합은 당초에 주요 6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태국)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가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라는 후발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소득 2만 8천달러의 선진국이나 라오스·미얀마의 경우 2천 달러 미만의 세계 최빈국에 속한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경제연합이라고는 하지만 각국의 경제발전(GDP 수준)이나 문화·인구 및 생활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성격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 시키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별 품목별 원산지 협상을 고사하고 '원산지 일반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데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만

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다.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간 FTA에서도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나 10개국을 포함 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우 아세안 내부의 합의도출이라는 선결 조건이 요구되므로 더 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다.

협상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05년 12월 양측 정상은 관세인하 방식에 합의하였고, 한국은 관세철폐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으로 297품목(HS 10 단위 기준)을 확보하였으며, 1년 이상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06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에서 상품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가장 민감하다고 취급되는 농산물은 양허제외(71개)로 설정하였다. FTA의 기본원칙이 상호간의 관세철폐임에도 불구하고, 양허제외로 설정된 품목은 관세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0년간 양허를 제외하다가 관세 일부를 감축하는 품목으로 226개를 설정하는 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가공농산물 등 151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2012년 20%, 2016년 5%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06년 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양측은 FTA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협정문에 서명하여 '07.6.1부터 발효되었으며, 서비스 분야는 '07.11월에 합의되었고, 현재 투자분야 협상이 '08년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 2. 한·EU FTA

인구 4억 8천만 명과 GDP 1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력을 보유한 거대한 단일시장인 EU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다. 한국과 EU는 '06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예비협의를 갖고 FTA 추진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07년 5월에 본 협상을 개시 하였다.

제1차 협상(07.5월, 서울)은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부터 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 등 전 분야에 걸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제3차 협상에서는 품목별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EU는 우리측 양허수준이 전반적으로 한-미 FTA보다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여 진전이 없었다. 농산물 양허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 농산물의 예외적 취급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했으나 EU측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제4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EU측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국내농업에서 생산 비중과 민감성이 큰 채소, 과일, 곡물에 대해서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등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을 주장하였으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일부 축산물은 국내업계의 어려움 등 민감성을 설명하는 한편 EU측의 수출보조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5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품 양허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농산물 수정양허안은 전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과 당초 전망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으로 작성하여 EU측에 제시하였다.

즉,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되, EU측도 우리가 요구하는 몇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EU측에 요구한 내용은 우선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일 분야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 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하거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같은 보호 장치를 도입하자고 요구하였으

며, EU측에 상업적 이익이 크고 제3국과 경쟁하는 품목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양허안을 개선하였다.

EU측은 자국에게 상업적인 이익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양허개선이 있어야 우리측이 요구하는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모든 품목의 양허안을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EU측이 먼저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협상타결 자체보다 협상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EU측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품목에 한해서 구체적인 양허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여 EU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6차 협상은 농수산물, 공산품 등 양허 협상 전체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자동차 표준, 공산품 양허협상 및 원산지 기준 등 이른바 3대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 협상은 5월 중순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농산물의 민감성 반영을 위한 예외적 조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적용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3. 한·캐나다 FTA

'05년 7월 한국과 캐나다 양국 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캐나다가 칠레, 싱가포르, EFTA에 이어 한국의 6번째 협상 파트너가 되었다.

캐나다는 '04년 기준 세계 제8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와 FTA를 맺고 있다.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감귤, 배, 파스타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돼지고기, 밀, 우지, 유장, 감자, 유채유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일반 특혜관세(GPT) 수혜국으로서 캐나다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10%이하의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캐나다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액 규모는 한국보다 약 10배 이상 많고 대부분 고관세 품목이라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관세 양허를 통한 실질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 입장을 취해 왔다.

한·캐나다 FTA협상은 실무회의 2차례를 포함하여 총 15차례의 협의가 '05년 7월부터 '08년 4월까지 3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었으므로 협상 전체적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이다. 현재 쇠고기·돼지고기, 대두, 천연꿀, 사료용 근채류, 맥아·맥주맥 등 품목의 관세철폐기간 또는 수입쿼타(TRQ) 물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고, 이들품목에 대해 캐나다는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은 양측이 상대국 관심품목을 얼마나 양허할지에 달려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측 관심품목인 승용차, 캐나다측 관심품목인 쇠고기·돼지고기의 양허수준이 협상 타결의 핵심사항이다.

정부는 앞으로 협상 속도 가속화에 대비하여 그동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 협상쟁점에 대해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 협상은 6월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4. 한·인도 CEPA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FTA에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말함

한·인도 CEPA 협상은 '04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그룹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검토가 시작되었다. '05.1월~'06.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그룹회의 결과 CEPA 협상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06년 3월에 본 협상이 개시되어 '08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08.4월까지 실무협의를 포함하여 총 10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 통관) 회의를 통해 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부문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상품분야 협정문안은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합의되었다.

상품 자유화 방식에 있어 양측은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양국의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상품의 7%에 해당하는 품목을 『양허제외』, 5%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 50%감축』 유형에 배치하였으며, 인도는 15%에 해당하는 품목을 『양허제외』, 5%는 『관세 50%감축』 유형에 배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08.5월로 예정된 제10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핵심 관심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자급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하고, 우리나라로의 농산물 수출규모가 약 2.3억불('03~'05평균) 수준이나, 인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출실적을 고려할 때 교역 잠재력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농림수산업 외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우리나라의 민감 농산물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어 농산물 양허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50%감축』 유형에 농산물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도측에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한·인도 CEPA 타결로 인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5. 한·멕시코 FT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FTA의 구성국인 멕시코와는 '06.2월 ~ 6월까지 3차례의 SEC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리측은 포괄적 범위의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농수산물에 한정된 양허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다.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경제보완협정)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음

이후 '07년 7월 멕시코측은 SECA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해 옴에 따라 우리측이 이를 수용, '07년 12월에 제1차 한·멕시코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로부터 약 380억원('07년 기준)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약 0.3%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며, 주요 수

입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맥주 등이다. 한·멕시코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 및 중국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상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2차 협상은 5월중순경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협상에서는 주로 상품 협정문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6. 한·중국 FTA 공동연구

한·중 FTA 공동연구는 '05.3월~'06.10월까지 완료된 민간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07.3월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농업전문가 회의를 포함하여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양국의 농업현황, 교역상황,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비교 및 민간 공동연구 결과 명기 등 농업 보고서 문안의 대부분에 합의하고, 남은 쟁점사항인 한국 농업의 민감성 반영 관련 문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년 6월말까지 공동연구를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농업 보고서에 “한국 농업의 민감성 관련 문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과 동사안은 “FTA 정식협상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중국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문제가 공동연구 종료의 핵심사항으로 남아 있어 '08.4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농업전문가 회의와 6월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다자협상과 사무관 강민철

지난 2월 9일 WTO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은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동 수정안은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이행기간, 특별품목 개수 등 핵심쟁점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최소 평균 관세 감축률, 열대작물에 대한 추가 관세감축 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제안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내용: 별첨 참고).

동 수정안 배포 이후 팔코너 의장은 주요국 심층회의(Room E, 2월)를 개최하여 각국 및 주요 협상 그룹의 입장을 청취하였으나 최소 관세 감축률 설정에 대한 EU 등 선진국의 반발과 개도국 특별품목의 지정개수 및 대우에 대한 논란 등으로 4월에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농업협상 세부원칙을 타결하려는 WTO 라미 총장의 당초 계획은 다소 순연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4.3) 농업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 관련 논의에서 주요 6개국(미국·EU·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DDA 농업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동 합의안은 수출국 및 수입국의 주장을 절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국은 농산물 세번의 일정비율 만큼(세부원칙 수정안에 따를 경우 선진국은 4%또는6%까지)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품목 보다 낮은 관세감축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보상으로 TRQ(저율관세물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수출국과 수입국은 민감품목 지정과 TRQ 증량방식에 이견을 보여왔다.

수출국은 민감품목 지정을 품목단위로 하고 TRQ 증량은 국내소비량의 x%로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입국은 민감품목 지정은 세번단위로(예컨대,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해당 세번만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TRQ증량은 수입량의 x%로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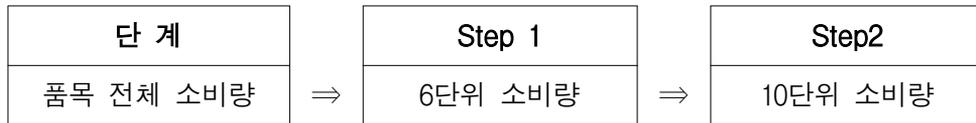
4.3 주요국 합의안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민감품목의 지정은 세번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TRQ 증량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 민감품목을 세번별로 지정하면 TRQ 증량도 세번별로 해야하므로 세번별 소비량 산출이 필요하나 소비량은 품목단위로 산출되고 세번별 통계는 없는 경우가 많아, 품목단위 전체 소비량을 세번별 수입비중에 따라 세번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lt;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 &gt;

## (4.3 6개국 합의안)

- 품목전체 소비량을 2단계에 걸쳐 배분하는바, 먼저 HS 6단위별로 배분(step1)한 후, 다시 이를 HS 10단위에 배분(step2)



- 이 때, 6단위별 배분은 해당 품목의 전세계 수입액 중에서 해당 세번의 총 수입액 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세 번별 비중을 정한 다음 (Step 1), 개별 국가의 10단위 세번별 수입비중을 고려하여 세번별 소비량을 추정 (Step 2)

	Step 1	Step 2
목적	◦ 품목 전체 소비량을 HS 6단위로 배분	◦ HS 6단위 소비량을 HS 10단위로 배분
기본 방식	◦ 전세계 수입액비중에 따라 배분 - 품목전체 전세계 수입액대비 해당 6단위 전세계 수입액 비중을 따라 배분	◦ 국별 수입액비중에 따라 배분 - 6단위 국별 수입액대비 해당 10단위 국별 수입액 비중을 따라 배분
산출 공식	◦ 6단위 소비량 = 전체 소비량 × $\left( \frac{\text{6단위 전세계 수입액}}{\text{품목전체 전세계 수입액}} \right)$	◦ 10단위 소비량 = 6단위 소비량 × $\left( \frac{\text{국별 해당 10단위 수입액}}{\text{국별 해당 6단위 수입액}} \right)$

한편, 수출국들은 가공품 세번에 많은 소비량이 배분되면 원료품에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게 배분되어 결국 전체 TRQ물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데 강한 우려를 보이면서 가공품 세번에 소비량을 배분하는데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4.3 제시된 6개국안은 가공도가 높은 가공품(18류 이상 가공품이 이에 해당)은 소비량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17류 이하 세번의 경우는 핵심 세번(Core tariff line)과 비핵심 세번(Non-core tariff line)으로 나누어 주로 원료품인 핵심세번에 전체 소비량의 90%이상을 배분(비핵심 세번에는 10%이하 배분)하도록 하였다.

금번 6개국 합의안은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민감품목 TRQ 증량의 기준이 되는 국내소비량 계산 방식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 합의안에 대해 수정 보완 의견도 제시되고(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있다.

민감품목 논의에서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되어 감에 따라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열대작물 등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며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의장은 이들 핵심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 후 4월말 경 농업분야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5월초 농업 및 비농업분야를 함께 놓고 주고받기 식의 고위급 '수평적 협의(Horizontal process)'를 진행하고 동 협의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5월 하순경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원칙의 최종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 참고 세부원칙 수정안 주요내용

### 가. 시장접근

#### 관세감축

- 선진국의 구간경계는 20/50/75이며, 최상위구간 감축율은 66-73%

관 세 구 간		감 축 율
1	75% 초과	[66-73]
2	50%초과 ~ 75%이하	[62-65]
3	20%초과 ~ 50%이하	[55-60]
4	20%이하	[48-52]

- 개도국은 구간경계는 30/50/130, 감축율은 선진국의 2/3 적용
  -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이행기간 8년
  -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 36%

- 관세상한 : 관세 감축 후 100%이상 관세 비중이 4%이상일 경우 민감품목의 TRQ [ ] % 추가 증량

#### 민감품목

- 민감품목수는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세번(무세제외)의 [4] or [6] %,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 개수의 1/3만큼 추가 인정
- 일반관세감축 대비 1/3, 1/2, 2/3 만큼 관세를 적게 감축(deviation)할 수 있으며 TRQ 증량은 관세감축 격차(deviation)와 연계하여 소비량대비 3-6%(개도국은 2/3)

## □ 특별품목

- 특별품목 개수는 최소 8%, 최대 [12] [20] %, 특별품목을 2개 구간으로 분리하고 구간별 평균 감축률은 각각 [8] [15] %, [12] [25] %
- 감축면제(전체 세번의 [8] %)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면제 불가 대안도 동시에 제시

## □ 열대작물

- 열대작물을 수출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반품목보다 더 큰 감축률 제시
  - ① 무세화, 85% 감축(관세 25% 기준)
  - ② 무세화, [66] [73] %(관세 10% 기준)감축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
- 쌀·고추·인삼 등이 포함된 열대작물 목록 제시

## 나. 국내보조

## □ 무역왜곡보조총액 및 감축대상보조

구 간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대상보조
1구간(EU)	[75] [85] %	70%
2구간(미국, 일본)	[66] [73] %	60%
3구간(기타)	[50] [60] %	45%

\* 무역왜곡보조총액 구간경계 : 100/100~600/600억불 이상

\* 감축대상보조 구간경계 : 150/150~400/400억불 이상

- 선진국 이행기간 5년(개도국 이행기간 8년, 우리나라는 3구간 해당)
- 품목 특정 AMS 상한은 UR이행기간('95~'04년) 동안 지원된 평균으로 설정하고 이행기간 동안 균등하게 유지

- 허용보조 : 수혜자격 기준을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기간 변경을 인정(예산제약 조건 삭제)

#### 다. 수출경쟁

- 수출보조 : 선진국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철폐하고(2010년까지 50%를 철폐, 2013년까지 나머지 50% 철폐) 개도국의 수출보조는 2016년까지 철폐(단, 수출물류비는 2021년까지 유지 가능)

## 세계농업 흐름 분석

### 1.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 2.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및 동향

주 일본국 대사관 농무관 이재현

### 3. 국제 곡물가 급등과 바이오연료 문제

주 이태리 대사관 농무관 서해동

### 4.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 시스템 개관

통상협력과 사무관 장재홍

### 5. 2007-2014 EU농산물 시장 및 농가소득 전망

주 EU 농무관 조재호

### 6. 뉴질랜드 농업개혁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서기관 정상천

## 〈경제학자와 수학자 이야기〉

경제학자 셋과 수학자 셋이 기차여행을 했다.  
수학자들은 표 석장을 샀으나 경제학자들은 한 장만 사는 것이었다.  
차장이 다가오자 경제학자들은 가까운 화장실로 갔다.  
차장이 노크하자 표 한 장을 든 손만 불쑥 나왔다.  
차장이 검표하고 갔으니 그들은 운임 3분이 2를 절약한 셈이다.  
이튿날엔 수학자들도 그 방법을 쓰기로 하고 표를 한 장만 샀는데 경제학자들은  
아예 표를 사지 않는 것이다.  
차장이 다가오자 수학자들은 화장실에 숨었고 노크 소리가 나자 표 한 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표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 경제학자들이 그 표를 가지고 다른 화장실로 간 것이다.

#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와 신흥시장의 곡물 수요 증가, 기상악화로 인한 단수 감소로 국제 곡물수급이 불안정하여, 2006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국내외 파급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및 축산과 식품부문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1. 애그플레이션과 국제 곡물가격 동향

### ● 애그플레이션의 개념과 특징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서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상승으로 말미암아 농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도매가격)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곡물 및 곡물제품을 원재료로 하는 요식업, 가공업, 공업 등 관련부문에다 파급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식품부문 외에 축산부문에다 영향을 미쳐, 곡물을 주원료로 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물 생산비용을 끌어올려 축산농가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육류, 달걀, 유제품 등 축산제품에 대한 가격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특정 국가만의 내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애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국제곡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앵겔계수가 극히 높은 최빈 개도국에서부터 곡물수요가 급증하는 신흥개도국, 곡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선진국까지 영향을 미친다.
- (2)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다. 기후 이상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작황이 회복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나,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소비 증가추세 심화에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다.
- (3) 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과거에 지속되었던 추세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여 과거 시계열추세와 일종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추세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반물가와 '장바구니물가' 간의 격차가 심해져 정부에서 일반적인 물가안정차원을 넘어 식료품가격 안정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 (5) 애그플레이션은 주로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내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
- (6) 일반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농가의 작목전환이나 재배면적 증대 등으로 1~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으나, 최근의 애그플레이션 문제는 생산, 공급 측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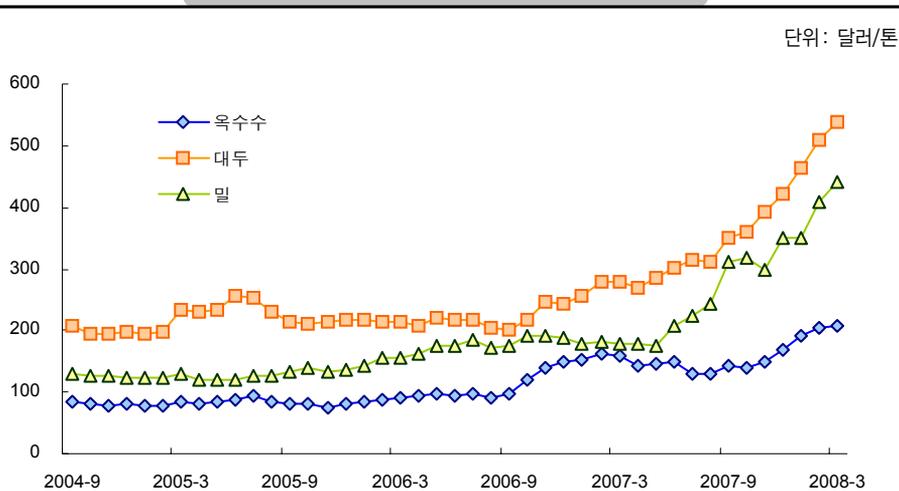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 측의 대응도 동시에 추진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7) 일반적인 농산물 가격상승은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희소성의 문제'이나, 현재의 문제는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하는 '풍요 속의 문제'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 국제 곡물가격 상승

2006년 중반부터 국제 곡물가격 급등 현상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8일 현재 옥수수 국제 선물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0.5% 상승하였는데 이미 그 이전 1년 동안 78.5% 상승하여 2년간 132.9% 급등하였다. 대두는 1년 전에 비해 92.9%, 2년 전에 비해 151.1%나 상승하였으며, 밀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45.8%, 182.9% 급등하였다.

그림 1 국제 곡물 선물시장 가격 추이



주: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대두는 Chicago 1등급 기준, 자료: USDA

대두는 2005~2007년에도 가격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었고, 2007년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4분기 동안에는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고가격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밀은 2007년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의해 해당 기간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계단형' 모습이 나타난다. 5월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 재고량이 늘어날 경우 가격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곡물가격은 해외에서 선물이나 현물로 매입하여 해상운송되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의한 운송료 상승의 영향까지 받아 선물가격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국내에 부담을 주고 있다.

표 1 품목별·기간별 운임포함가격 상승률 비교 (2008년 3월 기준)

단위: 달러/톤, %

품목	2006.3(A)	2007.3(B)	2008.3(C)	B/A상승률	C/B상승률	C/A상승률
옥수수	140.95	234.00	351.59	66.0	50.3	149.4
대두	263.76	344.90	680.47	30.8	97.3	1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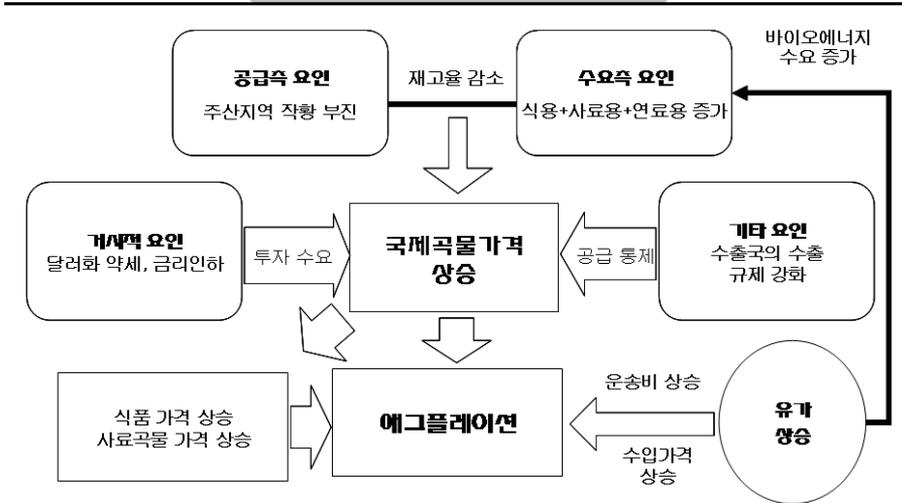
☞ 자료: 한국사료협회

## 2.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최근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애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원인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재고율의 급격한 하락이며, 그 외에 최근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펀드의 유입, 곡물수출국들의 수출규제와 수입국들의 비축용 매입 증가가 가격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주요 원인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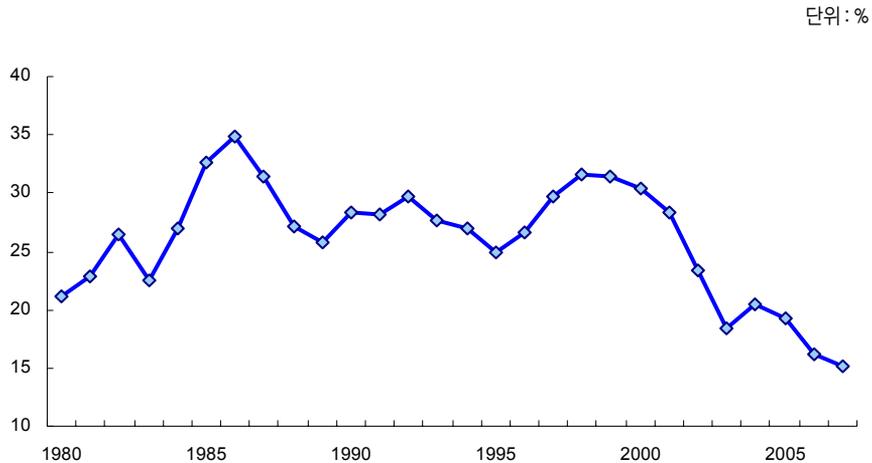
그림 2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 국제 곡물 재고율 하락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곡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의 변동이 커져 곡물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수급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연도별 기말 재고량과 재고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3 세계 곡물 재고율, 1980/81~2007/2008(전망치)



주: 옥수수, 대두, 소맥, 쌀을 포함함.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http://fas.usda.gov/psd>)

세계 곡물 재고량은 1999/00년 최고치(58,732만 톤) 기록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고, 2007/08년 재고량 31,396만 톤(전망치)은 1999/00년 대비 46.5% 감소한 수치이다. 재고율 역시 2000/01년 30.4% 이후 감소하여 2005/06년부터 20%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6/07년(추정) 16.2%, 2007/08년(전망) 14.9%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다.

###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곡물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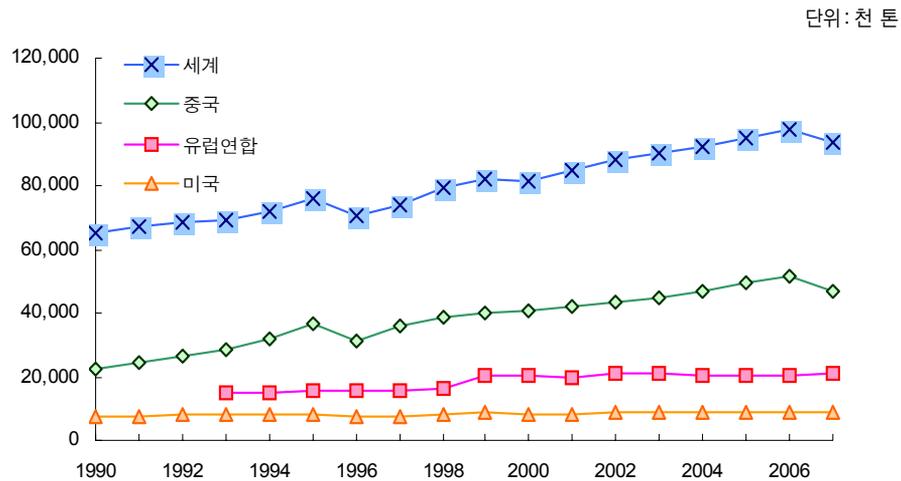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곡물을 포함한 식품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인구 거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이들 국가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을 지속할 경우,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곡물 소비에서 중국, 인도를 위시한 BRICs 국가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 2 세계 및 BRICs국가의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

품목	옥수수 (Corn)					대두유 (Oilseed, Soybean)					소맥 (Wheat)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2000/2001	34.5	120.2	12.0	1.9	608.3	24.7	26.7	5.3	0.4	171.8	9.5	110.3	66.8	35.2	582.8
'07/'08 (전망)	42.5	148.0	15.7	4.0	770.8	34.7	48.3	9.2	0.8	236.0	10.5	100.5	75.9	38.2	617.6
연평균 증가율	3.0%	3.0%	4.0%	11.2%	3.4%	4.9%	8.8%	8.3%	12.7%	4.6%	1.4%	-1.3%	1.80%	1.20%	0.80%

☞ 자료: FAS, USDA.

그림 4 주요국의 돼지고기 연도별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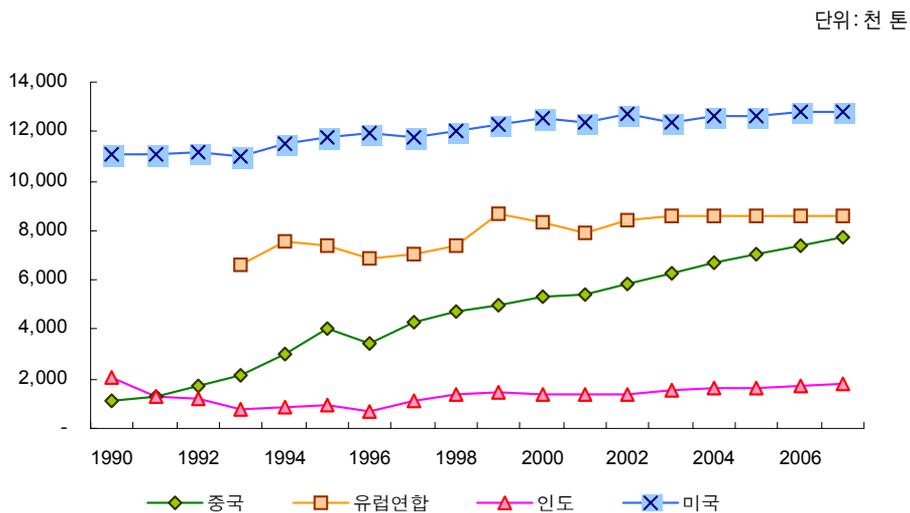
☞ 주: 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까지 15개국, 1999년 이후는 27개국임. 자료: FAS, USDA.

한편 이들 신흥시장의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로 육류 소비자가 증가함으로써 사료곡물 수요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

육기준으로 1990년 22,573천 톤에서 2007년 46,690천 톤으로 연평균 4.4%나 증가하였다.1) 같은 기간 세계 소비량은 61,218천 톤에서 93,839천 톤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면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주요국의 쇠고기 연도별 소비량



주: 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까지 15개국, 1999년 이후는 27개국임. 자료: FAS, USDA.

전 세계 쇠고기 소비량은 1990년 49,193천 톤에서 2007년 52,540천 톤으로 연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1,101천톤에서 7,756천 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2.2%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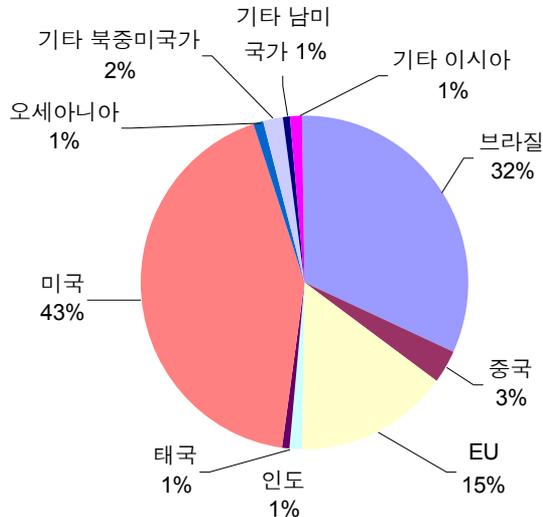
1) 2007년에는 돼지 소모성 질환의 피해로 사육두수와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량 역시 47,700천톤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1kg 생산을 위해 사료곡물이 각4kg, 8kg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류 소비 증가는 곡물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장려함에 따라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추정량 기준으로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은 미국, 브라질, EU, 중국 등이다. 미국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하여 전 세계 바이오연료의 43%를 생산하였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EU가 각각 32%, 15%를 생산하였다. 미국은 옥수수,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유럽연합은 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6 국가별 바이오연료 생산 비중(2007년)



☞ 자료 : FO Licht; USDA

표 3 주요국의 바이오연료 생산량(2007추정)

단위: 백만 갤런(gals.)

국가	에탄올	바이오디젤
브라질	4966.5	64.1
캐나다	264.2	25.4
중국	422.7	29.9
EU	608.4	1731.9
인도	105.7	12
인도네시아	0	107.7
말레이시아	0	86.8
태국	79.3	68.8
미국	6498.7	444.5
합계	12945.5	2571.1

☞ 주: 1갤런(gals.)은 3.79리터임. 자료: FO Licht; USDA

옥수수는 용도가 다양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의 사용 증가가 다른 부분에도 큰 파급영향을 미친다.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1990년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양이 8.9백만 톤으로 미국 내 옥수수 소비량의 6%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추정)에는 81.3백만 톤으로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2012년까지 75억 갤런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sup> 이 목표치는 2007년 추정치인 65억 갤런보다 15.4% 증가한 양으로 앞으로도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옥수수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2)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Vol. 5, Issue 5, USDA ERS, Nov. 2007.

표 4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사용량(1990~2007)

단위: 백만 톤

연도	에탄올	식품,종자및기타	사료	수출	합계
1990	08.9	27.3	117.1	43.9	197.1
1995	10.1	31.3	119.2	56.6	217.1
2000	15.9	33.8	148.4	49.3	247.4
2005	40.7	35.0	156.3	54.2	286.3
2006	53.8	34.8	142.2	54.0	284.8
2007(추정)	81.3	34.4	151.1	62.2	3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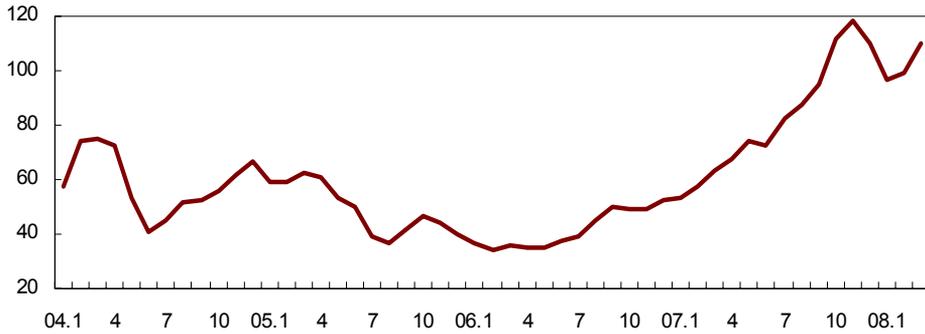
☞ 주: 표시된 연도는 미국의 마케팅 연도로 전년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USDA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곡물 생산 및 운송비용 증가

곡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투입재 및 농기계 등은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소비한다. 데이비드 피멘텔 등은 옥수수 1부셀 당 0.33갤런의 석유가 소비된다고 제시하였는데<sup>3)</sup>, 이를 환산하면 옥수수 100kg생산에 약 5리터의 석유가 소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가 상승은 곡물 생산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해상 운임 상승을 통해 곡물 수입국의 수입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cience 55, no 7, July 2005.

그림 7 해상운임 추이



주: (1) 2008년 3월 5일 기준. (2) 걸프만 출발 기준.

자료: 한국사료협회

### ●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 강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식품 가격 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대로 수입국들은 자국에 필요한 곡물의 확보를 위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교역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공급물량의 감소는 현재의 가격 상승 추세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수입 곡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곡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영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된다.

표 5 주요 국가 곡물 수출 규제 사례(2008.3.19 현재)

국가	종류	조치 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4/30
	곡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2/18~08/4/3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57 품목)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인도	밀, 밀 제품	수출금지	07/2/9~(무기한)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밀	민간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	07/10월 상순~
	밀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4~08/3/5
브라질	밀	1백만 톤까지 관세	08/2/6 공포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EU	곡물(일부 제외)	관세 철폐	08/1/11~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포

☞ 자료: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년 2월호

### ● 투자 자본의 유입

최근의 곡물 가격 급상승은 앞서 열거한 이유 외에 투자 자본 유입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는 금년 2월 초 연일 가격제한폭까지 뛰는 밀 가격 안정을 위해 2월 11일 일일 가격제한폭을 30센트에서 60센트로 확대한 바 있다. CBOT의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건이었으나 2007년 1,663,772건으로 연평균 30.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경기 악화에 따른 금리 인하와 금융 시장의 악화로 인해 자금이 곡물 등 원자재 상품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안 등으로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달러화 자산 역시 곡물 등 상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해소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역시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기 전에는 투자 자본의 상품 시장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과 변동 확대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모간스탠리 등에서는 앞으로도 상품 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3. 애그플레이션 파급 영향

#### ● 국제적인 영향

애그플레이션 현상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미국, 브라질, 호주, 중앙아시아 등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생산농가들에게 상당한 소득 증대를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수출국인 미국은 2007년 순농업소득이 870억 달러로 과거 10년간 평균에 비해 50%나 증가하였다.

반면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사료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축산 농가들에게 생산비 부담을 주어 수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돼지와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2006년간 각각 55.0%와 59.8%였으나 사료비가 상승하여 2007년에는 각각 60.4%와 62.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 증가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광열비 상승과 노력비 상승 요인도 작용하였으나 사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 비육우 두당 순수입율(순수입/조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19.6%에서 2.8%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돼지의 순수입률은 12.1%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우유의 순수입률은 9.4%에서 6.0%로 감소하였다.

표 6 미국 가축 사육 수익과 비용 변화

구분		2002~2006	2007	2008
소 (달러/두)	조수입	562.89	573.02	548.26
	생산비	452.72	539.04	533.01
	- 사료비	128.31 (28.3)	152.27 (28.2)	143.41 (26.9)
	- 기타	324.41	386.77	389.60
	순수입	110.17 (19.6)	33.97 (5.9)	15.25 (2.8)
돼지 (달러/cwt)	조수입	45.97	48.20	45.12
	생산비	40.41	47.04	54.97
	- 사료비	22.21 (55.0)	25.76 (54.8)	33.18 (60.4)
	- 기타	18.20	21.28	21.79
	순수입	5.56 (12.1)	1.16 (2.4)	-9.84
우유	조수입	14.21	19.15	17.38
	생산비	12.87	15.35	16.35
	- 사료비	7.70 (59.8)	9.56 (62.3)	10.21 (62.4)
	- 기타	5.17	5.79	6.14
	순수입	1.34 (9.4)	3.80 (19.8)	1.04 (6.0)

☞ 주: 사료비의 ( )안은 생산비 대비 사료비 비율, 순수입의 ( )안은 조수입 대비 순수입 비율임.  
 자료: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ch 2008.를 기초로 일부 계산

곡물 가격 상승은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계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종소비자 식료품의 생산자가격지수(도매가격지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곡물·축산물 가격이 2005년 3월 이후 2007년 5월까지 30% 이상 오르고 생산자가격지수가 2006년 1.5% 수준에서 2007년에 4%까지 상승하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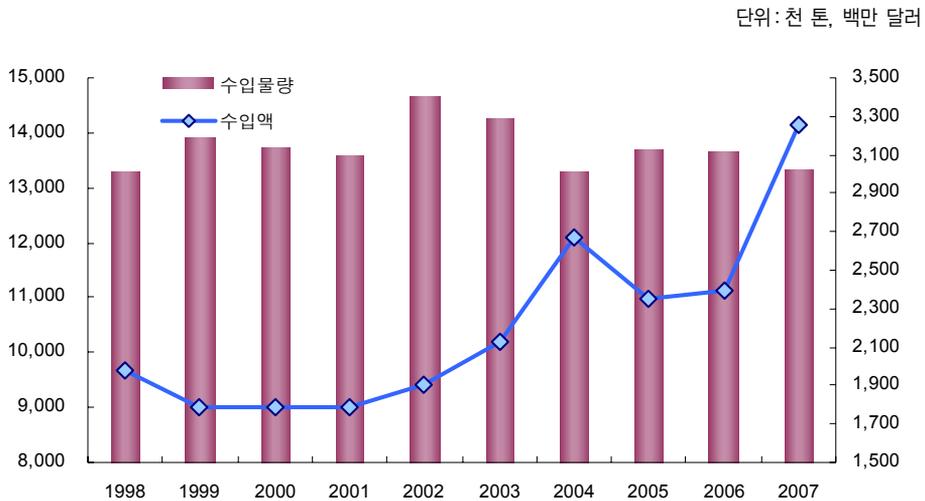
4)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2007.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부국과 빈국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 구입비 비중이 1/10에 불과하여 식품가격이 올라도 전체 물가에 큰 효과를 주지 않는데 비해, 빈국의 경우 식료품이 소비자물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빈국 국민들의 식품구매가 어려워져 기아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 국내 파급 영향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액은 2001년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수입물량 증가에 비해 가격 상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 곡물 단가 급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2007년 곡물 수입액 비중은 옥수수 56.3%, 밀 26.3%, 대두 13.2% 등의 순으로 높다.

그림 8 연도별 주요 곡물 수입 실적



☞ 주: 주요 곡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쌀 포함(쌀은 MMA 물량).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100%에 근접한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입 물량 증감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옥수수, 밀, 대두 모두 2006~2007년 재고물량 감소와 수입 물량 증가로 자급 수준이 다소 하락하였다. 2007년(전망치) 기준으로 전체 88 곡물 수요량 20,334천 톤 중 사료용 수요량이 9,829천 톤(48.3%)으로 가장 많았고, 식용 5,305천 톤(26.1%), 가공용(19.7%) 순이었다. 사료용 곡물 중 옥수수(7,459천 톤)가 차지하는 비중은 75.9%로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은 축산농가와 식품산업 분야이다.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식품산업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량 확보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업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고르게 상승시키거나 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sup>5)</sup>

5) Ephraim, Leibtag,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ERS USDA, 2008.2.

표 7 우리나라 주요 양곡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06년(잠정치)				2007년(전망치)					
	합계	밀	옥수수	대두	합계	밀	옥수수	대두		
공급량	전체	21,953	4,085	9,459	1,410	22,437	3,705	10,012	1,766	
	전년이월	2,507	500	766	73	2,324	462	627	66	
	생산량	5,434	6	73	183	5,275	6	65	157	
	수입량	식용	4,927	2,170	1,889	305	5,127	2,222	1,973	330
		사료용	9,085	1,409	6,731	849	9,711	1,015	7,347	1,213
		소계	14,012	3,579	8,620	1,154	14,838	3,237	9,320	1,543
수요량	전체	19,622	3,623	8,832	1,344	20,334	3,312	9,500	1,596	
	식량	5,379	1,226	70	101	5,305	1,245	61	102	
	가공용	소계	3,910	804	1,931	337	3,999	812	1,951	326
		식용	1,601	727	133	337	1,629	737	140	326
		양조용	539	45	87	-	593	42	92	0
		기타	1,770	32	1,711	-	1,777	33	1,719	0
	사료	9,311	1,538	6,809	888	9,829	1,135	7,459	1,155	
	종자	181	-	-	-	63	0	0	4	
기타	841	55	22	18	1138	120	29	9		
곡물 자급도 (사료 포함)	28.0	0.2	0.8	13.6	27.8	0.3	0.7	9.8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08.2.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은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07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년도보다 상승하였고, 품목별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이 전년도의 하락 추세(-0.1%)에서 상승 추세(1.9%)로 전환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인상된 것은 곡물 가격이 최근 2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가격이 급등한 점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sup>6)</sup>

2007년 말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초반 두 달 만에 전년 상승률 대비 0.8% 상승하였고 곡물 가격은 3.5%나 상승하였다. 가공식품과 외식비용 상승률도 전년 수준에 이미 근접하였으며, 축산물 가격도 전년도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8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물가지수	전체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곡물			
2005년 평균/ 2004년 평균	2.8	1.9	0.5	-3.1	5.5	5.1	2.4
2006년 평균/ 2005년 평균	2.2	-0.1	-0.8	-6.0	1.2	1.4	1.9
2007년 평균/ 2006년 평균	2.5	1.9	4.2	1.5	-2.9	2.9	1.9
2008년 평균/ 2007년 평균	2.1	0.8	-0.4	3.5	1.8	2.4	1.5

↳ 주: 2008년은 1, 2월만 해당.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각년도.

6) 한국은행, 2007년 중 물가동향 분석, 2008.1.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농축수산물 평균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 중에는 곡물 또는 곡물을 원료로 하는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밀가루와 대두를 이용하는 제품의 경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식품 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 결과 품목별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sup>7)</sup>

밀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하는 경우 가장 영향이 큰 부문은 제분으로 17.8%, 29.7%, 59.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밀가루를 주원료로 이용하는 빵, 과자 및 국수류로 1.4%, 2.3%, 4.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정미, 정맥, 제당은 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콩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 때 유지 및 식용유 가격은 각각 7.4%, 12.3%, 24.6% 상승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 가격 변동에 따른 유지 및 식용유의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콩 이외에도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다양한 원료가 이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지 및 식용유 외에 두부, 장류 등 기타 식료품도 0.7%, 1.2%, 2.3%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 때의 파급영향은 전분 및 당류 부문에서 10.9%, 18.2%,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분 및 당류 부문이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문인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등은 옥수수가 원료인 사료 가격 인상에 의해 간접적인 파급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밀, 콩, 옥수수 가격이 동시에 30% 변동하는 경우에 소비자

7) 김철만이진면, 애그플레이션이 식품시장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 자료 재구성, 2008.3.19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0.2%이고 100%일 경우 0.7%의 변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축산 부문 중 양돈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추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8)</sup>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생산비·경영비를 인상시켜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료비, 가축비, 산지가격 등의 가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비육돈의 수익성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 기관별로 시산한 비육돈 경영수지 결과는 <표 9>와 같다. 농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는 사육두수 감소 및 농가 폐업 증가, 종돈장 경영 악화, 돼지고기 품질 저하 등이 제시되었다.

8) 허덕·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 자료 재구성, 2008.3.19

표 9 비육돈 경영수지 시산 결과 비교

단위: 원/100kg

구분	06년 농관원자료 이용추정 (08년기준)	양돈협회 (08년 기준)	M사(08년 기준)	KREI 농가조사 (08년초 조사)	
산지가격및 조수입(A)	192,270	192,270	219,182	192,270	
생 산 비	가축비	43,183	54,580	-	53,542
	사료비	119,189	163,000	170,000	130,985
	인건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29,182	6,519
	약품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14,000	6,317
	분뇨처리비	-	-	16,364	15,604
	기타	44,033	41,247	32,000	16,369
	계(B)	206,405	242,191	261,545	229,336
순수익(A-B)	-14,135	-49,921	-42,364	-37,066	
비 고	1) 폐사율반영 여부 불분명 2) 분뇨처리비 타 항목에 분산 포함	1) 농관원 자료를 기초로 사료비 만 재산정함. 사 료비에 폐사돈 사료 급여 비용 을 추가시킴.	1) 가축비산정여부 불분명 2) 사료비에 번식 돈 사료비를 포 함하여 계산. 3) 생산비에서금융 이자비용 제외	1) 표본 수 적음. 2) 간이조사	

☞ 자료: 허덕·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  
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 토론회, 2008.3.19

## 4. 애그플레이션 전망

### ● 2007/08년 국제곡물 수급 전망<sup>9)</sup>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톤으로 전망되었고, 쌀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9.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67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1,939만 톤으로 전년보다 1.6%인 3,802만 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54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134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2007/08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8% 감소한 3억 14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기말재고율도 2006/07년도보다 1.6% 포인트 하락한 1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0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률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2,016.44	1,992.67	2,076.13	2,084.09	4.6	0.4
공급량	2,420.10	2,381.37	2,412.86	2,419.39	1.6	0.3
소비량	2,031.40	2,044.64	2,105.12	2,105.43	3.0	0.0
교역량	253.43	255.64	255.26	256.47	0.3	0.5
기말재고량	388.70	336.73	307.74	313.96	△6.8	2.0
기말재고율	19.1	16.5	14.6	14.9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5, March, 11, 2008.

9)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ch 11, 2008.

중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2006년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준에서 조정과정을 거치면 다소 하락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과거의 안정적인 가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가격 급등은 재고 감소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로 국제적인 투자자금인 선진국의 헤지펀드와 개도국의 국부펀드들이 곡물투자로 몰려 새로운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곡물 수출국들은 곡물 수출을 규제하여 시장공급을 줄이는 반면 수입국들은 곡물 비축을 위해 수입을 서둘러 시장수요를 확대하는 요인들이 가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투자 자본의 유입이나 수출국의 규제 조치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한 변수이지만, 수급 구조 변화,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변수는 보다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곡물가격 전망 결과 비교에 의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비관적 시나리오(10년 후 국제유가 100\$ 상회, 바이오연료 사용이 당초 각국에서 계획한 것보다 10% 정도 높은 시나리오)에 의해 전망한 가격이 2007년 OECD-FAO에서 전망한 가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08년 3월 FAPRI에서 전망한 가격 또한 옥수수과 밀에 대해 OECD-FAO에서 전망한 가격보다 높게 예측되었다. 세 연구기관의 전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하고 있는 점은 국제 곡물가격이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2006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변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표 11 국제 곡물가격 전망 결과 비교

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FAO	FAPRI	
주요 가정	-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 설정 * 국제 유가 * 세계 경제성장률 * 곡물 수요 변화 * 바이오연료 생산 * 환율 변화 전망 * 국내 사료가격 변화	- 세계 인구성장률 둔화 - 미국 경기침체 단기간 내에 회복 - 개도국식품 수요 및 소비패턴 변화 - 원유가격 과거보다 높은 수준 유지 - EU 확대, 바이오에너지 최초 고려	- 주요국 용자단가, 관세 수준, TRQ 물량, 수출 관세부과 등 농업정책 파급효과 반영 - 경제성장률, 환율 전망 등 반영	
전망치 (2016/17)	옥수수	137달러/톤(중립적) 173달러/톤(비관적)	138달러/톤	152달러/톤
	대두	328달러/톤(중립적) 383달러/톤(비관적)	300달러/톤	288달러/톤
	밀	374달러/톤(중립적) 489달러/톤(비관적)	183달러/톤	204달러/톤
최근 특이사항	- 미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증대 - 원유가격 상승 지속 전망(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 주요 수출국의 곡물수출관세 부과 등 교역 제한 조치 강화			

- 주: (1) FAPRI는 2008년 2월 위 전망치를 보완한 미국 baseline 발표.  
 (2) OECD-FAO 전망에서 옥수수는 No. 2. Yellow price, FOB USA, Gulf port 기준, 유지작물은 유지종자가격의 가중평균, 소맥은 2등급 HRW 기준.  
 (3) FAPRI 전망에서 옥수수와 소맥은 FOB USA 기준, 대두는 CIF 로테르담 기준.
-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파급영향”(김병률·이명기, 2007.12.4일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업전망 2008, 2008.1.  
 (2) OECD-FAO :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3) FAPRI : 2008 US Baseline Briefing Book. 200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 결과가 다른 전망 결과에 비해 높은 이유는 특히 모델에 포함되는 유가, 환율 등 가정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OECD-FAO 전망 모형은 국제에너지청(IEA)의 「원유가격 전망 2006」을 이용하여 원유가격 가정<sup>10)</sup>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FAPRI 역시 원유 가격이 향후 10년간 50달러/배럴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을 비교적 낮게 잡았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원유가격이 2007년 수준을 유지(중립적)하거나 2010년 이후 100달러를 상회(비관적)하는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비교적 최근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향후 수출국들의 교역 제한 조치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곡물 상품시장이 안정화되면, 실제 가격은 각 연구기관이 제시한 장기 전망치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곡물가격 전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곡물가격상승이 구조적인 소비증가에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생산 증가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급등한 상태를 지속하거나 조정과정을 거쳐 하락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안정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변동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곡물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계지, 개간지들이 늘어나 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소비 측면에서도 식용과 사료용 소비가 일부 대체되거나 억제되기 때문에 현재 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대응 방안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애그플레이션 대응방안은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축산 관련 대응방안, 식품 관련 대응방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0) 원유가격이 2012년 55달러/배럴까지 하락, 2016년 60달러/배럴 수준에서 유지

### ●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정책의지가 담긴 자급률을 재설정하는 한편, 실제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세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급률은 국내 요인도 있지만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요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 의지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목표치 설정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강력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개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나 이와 함께 증산된 식량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쌀은 곧 밥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입맛이 다양화된 청소년들을 쌀의 주 고객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개발과 쌀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가공 및 소매업계 쌀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작은 성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부터 보리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보리 생산 농가들이 밀 생산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sup>11)</sup> 우리밀의 주 생산 예정 지에는 우리 밀 전문도정소를 설치하여 우리 밀을 안정적으로 상품화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유통 및 판매 전략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11) 밀 국내외가격차는 2002년 4.4배에서 2004년 3.8배, 2007년 1.7배로 축소

만일의 식량위기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곡물을 식량안보용으로 추가 확보하여 비축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공유와 함께 위험요인 발생 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식량 수급과 가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12 애그플레이션 대응방안

곡물의 안정적 확보	축산대책	식품 관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구체화</li> <li>-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 개발 확대</li> <li>- 2모작 밀 생산 확대</li> <li>- 식량안보 비축 확대</li> <li>- 조기경보시스템 구축</li> <li>- 해외농업개발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농가 사료비 보조</li> <li>- 사업업계 지원 정책 마련</li> <li>-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li> <li>- 대체사료원료 개발</li> <li>- 축산업 계열화와 광역 단위 브랜드화</li> <li>- 사료곡물 관세 인하 조치 (TRQ 물량 외 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소득보조 (푸드 스탬프)</li> <li>- 가공업계 보조를 통한 식료품가격 억제</li> <li>- 식품소비자물가지수 (Food CPI) 산정 발표</li> </ul>

대외적으로도 해외에서 농경지를 확보해 유사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식량개발 차원에서 개발대상국들에 대해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호혜적인 계획’ (win-win 전략)을 추진하되, 해당국들과 개발협력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곡물 수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해외농업개발은 초기자본투자가 크고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독자적으로 추진 하기보다는 다른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축산부문 대응방안

축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보조 및 사료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료비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는 방안과, 사료업체의 원활한 곡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지, 이모작 농지를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으로 수입 사료곡물 소비를 일부 대체하는 방안과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원료 개발 및 국내부존자원 활용의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축산업 계열화·규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료업체, 축산농가와 도축가공업체 간의 계열화를 강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영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5. 식품부문 대응방안

식품 부문 대책으로는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대책 실시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료품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푸드 스탬프 등 소득보조대책을 실시하여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보다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를 보조함으로써 곡물가격 상승이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소비자물가지수(Food CPI) 산정 발표도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신선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가공식품, 외식 등 농·식품과 관련된 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정 발표하여 농식품 관련 정책 및 물가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애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상승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것은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그 원인을 없애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세계적인 곡물 생산 증대, 바이오연료용 곡물사용에 대한 조정, 수입의존도가 높은 후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곡물 수출규제나 비축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12) 2008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과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계획 발표

#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및 동향

주 일본국 대사관 농무관 이재현

## 1.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개요

개발수입은 식품기업, 유통업체, 외식산업 등이 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해당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장려하는 것은 아님

정부는 원조형태로서 기술협력, 자금원조 등을 하지만,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해당국의 소비에 충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일본자본에 의한 생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함.

따라서 정부가 상대국의 경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움. 일례로서 브라질 세라도 개발은 그 지역의 산성토양을 알카리성으로 개조함으로써 대두 생산을 증대시켜 가능한 일본으로 수입할 계획으로 착수하였으나, 대일 수출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식량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08.4.1일부로 식량안전보장과를 신설하였는데, 식량안전보장을 위한 세가지 주요 추진정책은 국내대책, 비축 및 수입선 다변화임.

당관 농무관이 식량안전보장과 담당관을 접촉하여 파악한 바, 정부에 의한 해외 농지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상사에 의한 활동은 언론 보도내용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어 전체 현황을 파악치 않고 있음은 물론 정부 지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함.

다만, 1980년대초에 JICA를 통한 ODA 사업으로 브라질 세라도 지역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나, 최근의 ODA 사업은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순수 원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무역중개업에 치중하던 일본의 대기업 상사들은 최근 대두 등 곡물가격의 급등과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 직접 생산 투자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곡물확보에 나서고 있음.

## 2. 일본 · 브라질 세라도(cerrado) 개발사업의 개요

### 가. 세라도란

세라도란 브라질의 중앙고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식생의 호칭임. 이전에는 불모의 토지로 여겨졌으나, 석회 등의 토양개량에 의해 곡물재배가 가능한 것이 판명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대두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업개발이 급격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면적은 약 2억ha (일본국토의 5배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개발가능면적이 1억2700만ha, 현재의 농용지면적이 4,700만ha이므로 농업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아직 8,000만ha나 남아있어 세계최대의 농업프론티어로 자리잡고 있음.

현재 세라도가 브라질농업에서 차지하는 쉐어는 곡물전체의 25%, 대두 50%, 소사육 마릿수 40%에 이룸.

## 나. 일본·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 협력사업

일본과 브라질이 공동으로 실시한 세라도농업개발협력사업은 포르투갈어의 약칭으로부터 「프로디젤사업」으로 불려지고 있음. 이 사업은 2001년 3월을 끝으로 20년 이상에 걸친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었음. 동사업은 1979년의 사업개시에서 종료까지 3기로 나뉘어져 600호 이상의 농가가 입식하였으며 사업면적이 33만ha 이상이 된 이례적인 규모의 커다란 농업개발원조임. 일본측은 국제협력사업단(JICA)과 당시의 해외경제협력기금(현국제협력은행)이 동사업의 실시주체가 되었음.

사업전체의 스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측과 브라질측이 사업비용의 90%의 자금을 준비하여 그것을 사업지에 입식한 농가에 브라질의 금융대행기관을 통하여 설비·영농자금으로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음. (즉 농가는 입식할 때에 10%의 자기자금을 준비함.) 이것과 더불어 JICA가 실시한 사업에서는 장기 전문가를 브라질에 파견하는 측면에서 원조하였음.

이사업은 1970년대 초, 미국 정부의 대두수출금지가 발단이 되어 당시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이 대두수입국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경단연까지 참가시켜, 대두의 신산지를 브라질에 만들자는 것으로 개시되었음.

이 사업의 진척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브라질과 일본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개발회사(칸포)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의 ODA처럼 일본이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한 내셔널프로젝트인 것이 큰 특징임.

## 다. 프로디젤사업의 성과

일본의 대두자금률은 전체에서 약 4%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수입처의 상대국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는 미국에서 96%를 수입하고 있던 것에 반하여 1999년에는 79%로 그 비중을 저하시키고 있음. 이것에 반하여 1980년에는 총수입량의 1%를 밀돌던 브라질에서의 대두수입이 1999년에는

12%로 비율이 증가하여 현재 미국에 이은 대일본 대두 수출국이 되고 있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세라도 개발에 의한 브라질의 대두 생산 증대의 효과임.

「세라도개발」이 「프로디젤사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후자가 하나의 성공모델을 제시한 것에 의해 세라도전체의 농업개발에 대한 기폭제의 효과를 발휘한 것은 틀림없음. 그러한 의미로 다나카 수상이 목표로 한 대두 수입처의 다각화라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또한, 이것은 일본 한나라만의 문제에 멈추지 않음. 북미와 남미는 수확시기가 반년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의해 흉작에 대한 리스크분산에도 메리트가 있으므로 세계의 식량수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봐서 대규모의 농업개발이 가능한 곳은 브라질의 세라도 밖에 없다는 설도 있음. 브라질 이외에도 주요수출국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의 대두 생산은 일본 뿐 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도 향후에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그 동향에 대하여 계속하여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3.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sup>1)</sup> 현황

#### 가. ODA의 기본방침

‘03.8월에 책정된 ODA大綱에는 농업분야의 협력과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취급을 중점과제로 책정하였고, ‘05.2월 각의(閣議)보고한 새로운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에는 빈곤삭감과 지구적 규모의 문제 중에 농림수산분야의 협력을 책정함

1)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은 국민총생산(GNP)의 0.31%에 이르는 600억 달러의 ODA를 공여하고 있으나 국제연합(UN)은 일정 기간까지 0.7%로 늘리기로 결의하였다.

정부개발원조(ODA) 대국인 미국(114억 달러)과 일본(91억 달러)은 액수로는 세계 1, 2위이지만 GNP 비율로 보면 각각 0.21%(17위), 0.31%(12위)로 여전히 낮다. 특히 일본의 ODA는 차관 원조가 대부분이어서 국익과 연결되어 있다. 무상자금 원조 및 기술협력 등 반제를 구하지 않는 ODA는 43%에 불과하다.

그 내용은 빈곤삭감을 위하여 농산물시장과 부두, 농도, 관개시설 등의 소규모 인프라를 정비하고, 농업관련정책입안 지원, 관개 및 농도 등의 생산기반 강화, 아프리카에 대한 네리카버 등 생산기술의 보급 및 연구개발, 주민조직의 강화 지원,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농산물가공, 시장유통과 식품판매의 진흥 등 농업이외의 경제활동 육성도 지원함

#### 나. ODA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역할

일본은 ODA로서 양국간의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및 국제기관에 자금 부담 등을 실시함.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성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재를 활용한 각종 협력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 ODA 예산을 활용한 독자적인 협력활동을 실시함. 농림수산성의 이러한 국제협력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등에 의해 식량의 안정공급의 확립에 관한 시책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음.

농림수산성의 ODA예산은 정부전체 ODA예산의 약 0.7%를 차지함.

- '07년도 ODA예산 : (정부전체) 7,293억엔, (농림성) 48억엔

농림수산성 예산은 ① 일본 및 세계의 식량안전보장과 개도국의 기아·빈곤 퇴치 ② WTO, EPA 등의 농림수산분야의 국제협상 원활화 ③ 삼림의 감소, 사막화, 물문제 등 지구환경문제의 대응 ④ 동식물의 越境性 질병과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등의 자금으로 기본적으로 실시함

농림수산성 ODA예산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① 각종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각국의 농업사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와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② 농림수산분야의 국제기관이 행하는 협력활동 등에 대한 자금의 부담 등이다. (붙임1. ODA의 농림수산업 협력개요 참조)

## 4. 일본 민간기업의 식량확보 및 해외농업투자 동향

세계적인 수급 부족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인상되는 가운데 주재국의 일부 종합

상사가 식량(사료 포함)의 안정 확보에 나섰다. 식량쟁탈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해외산지에서 직접생산하고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며 일본국내에서의 집하시설을 증강하는 상사도 있음.

#### 가. 2007년 이전까지의 일본 상사들의 동향(붙임2 참조)

일본의 미쯔비시 상사 및 미쯔이물산 등 대형상사들은 대두 등 곡물을 국제시세에 따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무역중개에 치중하였음. 2006년경에는 중국의 대두수요에 맞추어 브라질산 대두의 대중국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편, 급격한 수출선 변화로 인해 선박운임 및 곡물선용선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루베니는 2005년에 프랑스 곡물상사인 아그렙코그룹으로부터 남미산 곡물의 일본, 동아시아용 10년간의 우선판매권을 취득하는데 합의하였다. 마루베니는 아그렙코그룹이 소요하고 있는 항만터미널 업체인 테르로구사에 대해 출자비율을 25.5%로 확대하여 1,880만달러가 되었음.

#### 나. 2007년 이후의 생산 단계 직접투자 검토 배경

일본의 상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배경에는 해외에서의 식량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바이오 에타놀 지향 곡물생산의 확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식량수급 증대 등으로 종래와 같이 우월한 위치에 서서 여유롭게 지낼 수 없게 됨.

세계최대의 대두수출국인 미국에서는, 대두농가가 바이오 에타놀용 옥수수 재배로 전환하는 '밭의 油田化'가 진행되고 있음. 그 결과 대두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두부나 낫또(納豆), 대두유용의 원료를 미국에 의존해온 일본에게 적신호가 켜졌음.

#### 다. 종합상사들의 시각

미쯔이(三井) 물산의 효도 히데아키(兵藤英明) 식용유용 대두조달 책임자는 북미로부터의 대두조달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빠르면 2012년쯤에 미국산 대두는 브라질산에 뒤쳐질 것이라고 예상

스미토모(住友)상사 곡물유지부의 쿠로자키 히로야스(黒崎弘康) 부장은 기후에 의한 시장변동은 지금까지 빈번하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달라 식량 가격의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하태세를 한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

#### 라. 종합상사들의 최근 투자사례

미쯔이(三井)물산은 브라질에서 농업생산에 참여함. 공급처에서 소비처로 상품을 유통시켜 중개료를 취득하는 것이 상사의 전통적인 스타일이지만, 생산 분야에 직접 뛰어들어 대두나 밀 확보를 도모

2007년 11월, 도쿄도의 절반 크기에 가까운 10만 헥타르의 광대한 농지를 소유한 곡물생산회사를 매수하여 대두 11만톤, 옥수수 3만톤 등을 생산,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유럽에 공급할 계획

\* 계획서는 전문 주일본국대사관-3436(2008.3.7) 호로 기발송

비유전자조작(GM) 대두를 분별할 수 있는 싸이로도 건설하여 일본으로의 공급을 확보하기를 희망

캐나다에서 유채의 착유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연간 30만톤의 유채유와 50만톤의 사료용 유채밀을 생산할 계획

스미토모(住友)상사는 원료조달처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북미를 중심으로 연간 약 30만톤의 대두를 수입해 왔으나, 앞으로는 남미에서 산지의 개척을 추진할 구상

토미타(富田) 통상의 자회사 토요우(東洋) 그레이인 터미널사는 금년 1월말, 12억엔을 투자하여 아이치현(愛知縣) 치타시(知多市)에 신형 사료용 싸이로를 완공

지금까지는 싸이로가 소규모였으므로 소형선으로 수송하여 효율적이지 못하고 코스트가 높았으나, 앞으로는 대형선에서 직접 반입할 수 있어 저가격의 대두박 수입으로 코스트를 낮출 수 있게 됨.

## &lt;붙임 1&gt;

## ODA 농림수산업협력분야 개요

## 1. ODA 기본방침

- 2003년8월 개정된 ODA 대강에서 농업분야의 협력이나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의 대처가 중점 과제로 자리매김함.

## □ 정부개발원조대강(초) (2003.8.29일 각료결정)

## 1. 이념

## 3. 중점과제

## (1) 빈곤삭감

빈곤삭감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중요한 개발목표로, 국제사회에서 테러 등의 불안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이나 보건의료, 복지, 물과 위생,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중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 사회개발을 지원한다.(후략)

## (3) 지구적규모의 문제에의 대처

지구온난화를 시작으로 하는 환경문제, 감염증, 인구, 식료, 에너지, 재해,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와 같은 지구적규모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즉시 협조하여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ODA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규범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한다.

- 또한 2005.2.4 각의보고에서 실시한 새로운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에서도 빈곤삭감이나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의 대처 가운데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을 자리매김함.

## □ 새로운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초)

(2005.2.4 각의보고)

## 3. 중점과제 관련

## (1) 빈곤삭감

(a) 빈곤삭감을 위한 어프로치 및 구체적 대처

(b)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

(ii) 생계능력 강화

...빈곤층에 도움이 되도록 농산물시장이나 항구, 農道, 관개시설 등 소규모적인 경제 인프라를 정비하고...

(c) 성장을 통한 빈곤삭감을 위한 지원

(ii) 균형있는 발전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므로 농업관련 정책입장 지원, 관개나 農道 등의 생산기반 강화, 어프로치에 있어서 네리카버 등 생산기술의 보급 및 연구 개발, 주민조직의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있어서 농산물가공, 기장유통이나 식품판매의 진흥 등 농업이외의 경제활동의 육성을 지원한다.....

## (3)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의 대처

(a) 환경문제 대처에 관한 어프로치 및 구체적 대응

...「지구온난화대책」,.....및.....삼림의 보전.관리, 사막화대책,.....을 중점분야로.....협력을 추진한다.

## 2. ODA에 있어서 농림수산성의 역할

- 일본은 ODA로서 양국간의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국제기관에의 부담 등을 실시
- 이러한 실시에 맞게 농림수산성은
  - ① 농림수산성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재를 활용한 각종 협력활동에의 지원
  - ② 농림수산성의 ODA예산을 활용한 독자 협력 활동을 실시

## ❖ 참고 ODA의 실시체제의 재검토에 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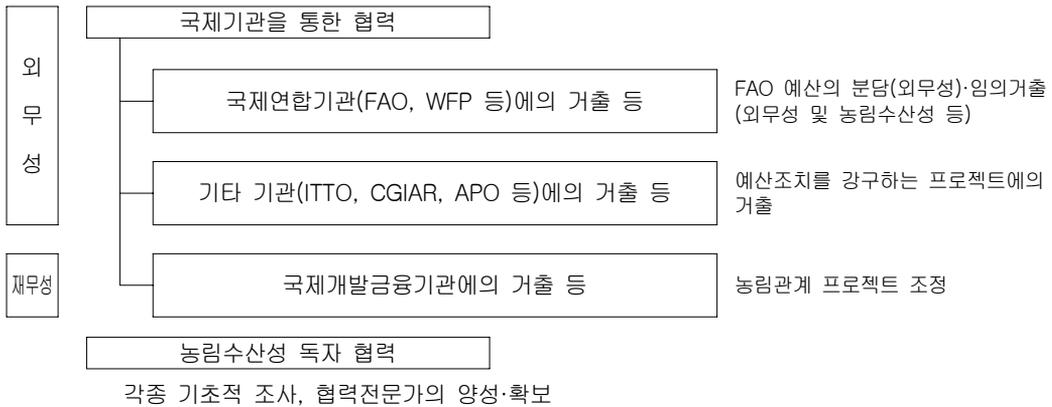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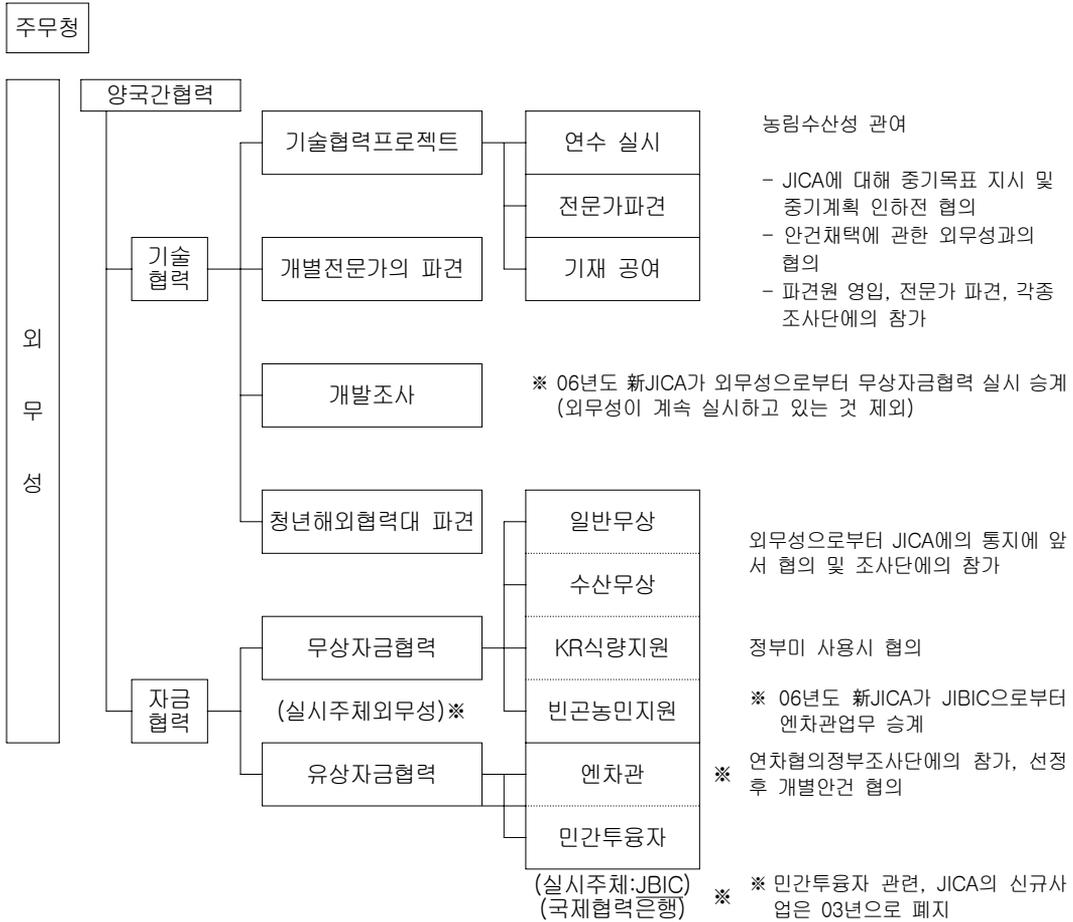
- 해외경제협력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는 2005.12-2006.2간 내각관방장관이 개최하는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재검토회」에서 의론되어, 정부내 체제의 자세로서는 해외경제협력회의의 설치, 실시기관의 자세로서는 JBIC의 엔차관부분과 무상자본협력의 실시기능의 JICA에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정부내 체제)

- 해외경제협력회의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전략적인 해외경제협력정책의 효율적인 실시를 꾀함을 목적으로 2006.4.28 각의결정을 받아, 상설 멤버를 총리대신(의장),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으로서, 내각에 새롭게 설치됨(기타 각료는 필요에 따라 참가).

### (실시기관)

- JIBIC(엔차관부분)과 JICA의 통합 등과 관련해서는, 2006.11월 법률이 개정되어, 2008.10월까지 실시하기로 함.



- 이러한 농림수산성으로서의 국제협력에의 대처에 관해서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등에 있어서, 농림수산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에 대한 식료 안정공급의 확립에 관한 실시의 일환으로서 자리매김함.

####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초)

##### 제2장 기본적 정책

##### 제2절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 (국제협력의 추진)

제20조 국가는 세계 식료수급의 장래에 걸치는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진흥에 관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이들 지역에 대한 식료원조,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하기로 한다.

#### □ 삼림·임업기본법(초)

##### 제3장 삼림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에 관한 시책

##### (국제적인 협조 및 공헌)

제18조 국가는 삼림이 갖는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를 국제적 협조하에 촉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삼림의 조정 및 보전에 관한 준칙 등의 정비 대처를 위해 국제적인 연휴,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하기로 한다.

## □ 수산기본법(초)

## 제2장 기본적 정책

## 제2절 수산물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국제협력의 추진)

제20조 국가는 세계 수산물 수급의 장래에 걸치는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수산업 및 진흥에 관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하기로 한다.

## 3. 농림수산성 ODA에 의한 대처

- 농림수산성의 ODA 예산은 정부전체 ODA예산의 약 0.7%(약 48억엔)
- 이는
  - ① 일본 및 세계 식료안정보장의 개발동상국의 기아·빈곤의 삭감
  - ② WTO, EPA 등의 농림수산분야의 국제교섭의 원활화
  - ③ 삼림의 삭감·열화, 사막화, 물문제 등의 지구환경문제에의 대응
  - ④ 동식물의 월경성질병이나 대규모이면서 돌발적인 자연재해에의 대응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실시
- 농림수산성의 ODA예산을 활용한 구체적인 대처로서는
  - ① 각종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국의 농업사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나 기술개발, 인재육성
  - ② 국제기관이 행하는 농림수산분야 협력활동 등에 대한 자금의 부담 등을 실시

## □ 정부전체의 ODA 예산

(단위: 백만엔, %)

구 분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2007년도 비율
내 각 분 부	38	37	0.0
경 찰 청	23	30	0.0
금 융 청	103	94	0.0
총 무 성	954	963	0.1
법 무 성	361	342	0.0
외 무 성	473,291	454,359	62.3
재 무 성	193,225	185,292	25.4
문부과학성	43,228	42,688	5.9
후생노동성	9,945	10,348	1.4
<b>농림수산성</b>	<b>4,975</b>	<b>4,753</b>	<b>0.7</b>
경제산업성	32,255	29,182	4.0
국토교통성	929	834	0.1
환 경 성	400	417	0.1
계	759,728	729,339	100.0

## □ 농림수산성 ODA 예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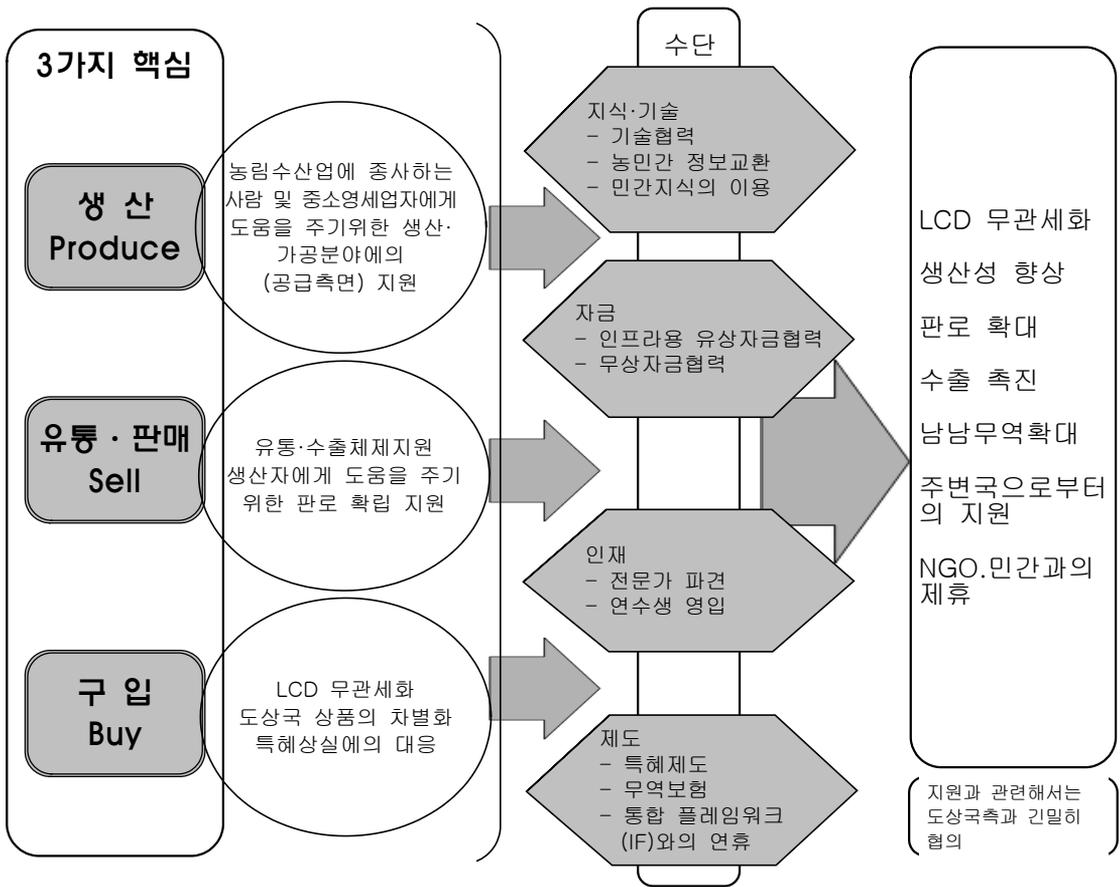
(단위: 백만엔, %)

구 분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2007년도 비율
기초조사 등	2,861	2,682	56.4
국제기관에의 부담	2,114	2,070	43.6
계	4,975	4,752	100.0

## 개발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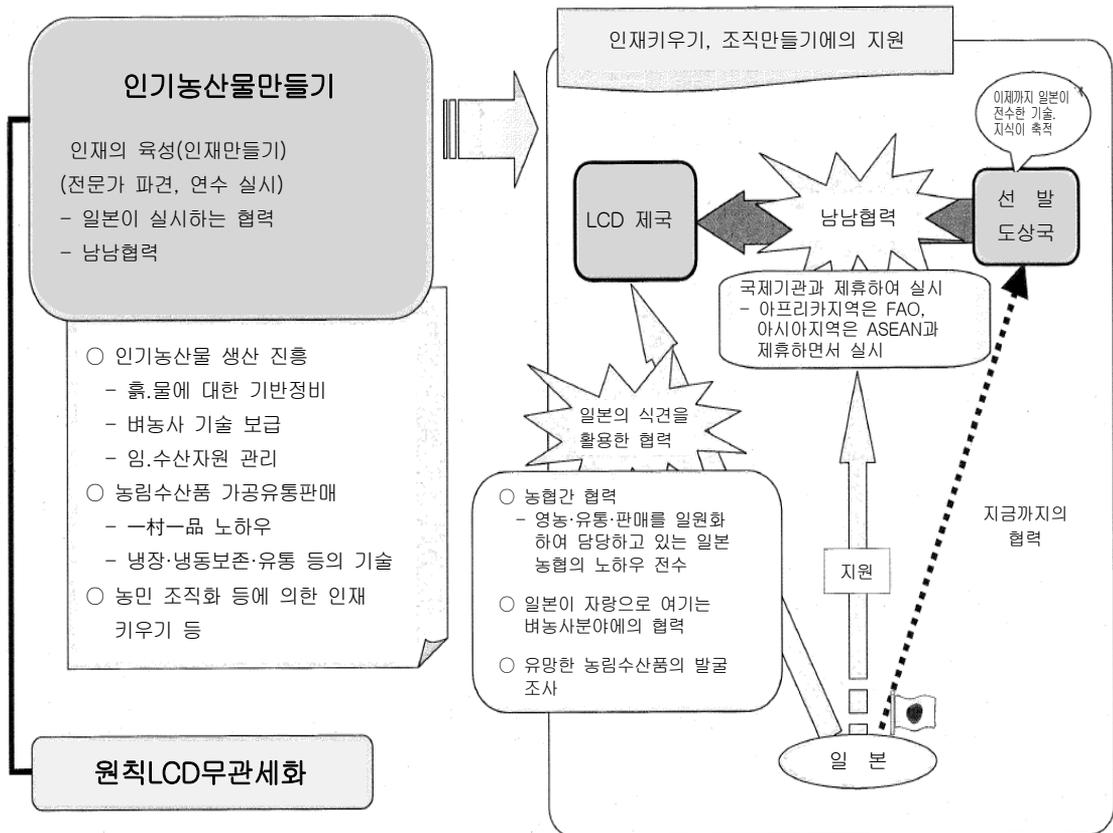
### (1) 개발이니셔티브 전체상

- 일본은 2005년 12월 WTO 홍콩관료회의시 「개발이니셔티브」를 공표
- 이후 3년간 총 100억달러의 자금 협력과 총 1만명의 전문가 파견, 연수생 영입을 실시



(2) 농림수산성에 의한 개발이니셔티브

- 생산의 현장에서 수출처의 식탁까지 일련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지원



## &lt;붙임 2&gt;

**남미지역의 대두자원과 각국의 동향**

## 1. 개요

중남미지역의 최대 대두생산국은 브라질로 2006년도 6,200만톤(세계점유율 28.2%)이며, 아르헨티나(3,900만톤), 파라과아이(420만톤)등을 합하면 미국(7,897만톤)을 상회하는 생산량으로 이들 대부분이 곡물메이저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카길 등의 곡물메이저가 대두생산농가와 계약하여 유통망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일본계상사 및 중국 등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 구입하고 있음. 최근, 식량 안정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인 토지 구입 등을 통한 조달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나, 현지 농가들의 비즈니스 습관 및 메이저들이 이미 계약재배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임.

## 2. 브라질 대두자원과 각국 동향

브라질의 최대 대두생산지는 197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ODA제공을 통한 자금, 기술협력을 받은 브라질 정부가 개발한 세라드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대두가 아마존강을 이용하여 운송됨으로 인해 현재 대두생산지는 북동부의 마라논주까지 확장되고 있음.

브라질의 최대 수출품은 대두로 2005년 현재 대중국 716만톤으로 최대의 수출국이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11위로 42만톤을 수입하고 있음.

브라질에서는 구미각국의 곡물메이저들이 20세기초부터 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두산업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되기 시작되었음.

현재, 분계, 카길, AMD, 루이스 드레이휴스 등의 4대 곡물 메이저가 독점상태로 비료, 물류, 착유까지 폭넓게 장악하고 있음.

일본, 중국 등은 곡물메이저를 통해 대두를 조달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독점적인 메이저 구입루트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 등을 정비해 주는 조건으로 대두에 의한 곡물조달 결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매사절단 파견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 대두는 아르헨티나산에 비해 GMO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본용으로 인기가 있으나, 일본내 사료 사용량 둔화로 인해 일본의 상사들이 중국으로 판매를 돌리기 위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미쯔비시 상사 및 미쯔이물산 등이 대중국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편, 급격한 수출선 변화로 인해 선박운임 및 곡물전용선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 밖에 2002년의 브라질 통화 하락을 계기로 미국 농업경영자들에 의한 토지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용 농업용지 전문 중개 부동산회사도 성업하고 있음. 미국내 생산코스트 증가, WTO협상에 따른 향후 농업보조금삭감 등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인에 의한 브라질 토지취득, 대두 등의 국제시황상품 생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임. 미국 농무성에 의하면, 브라질의 경작가능지는 향후 1억7천만ha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브라질에서의 농업투자는 장래적으로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루베니는 2005년에 프랑스 곡물상사인 아그렙코그룹으로부터 남미산 곡물의 일본, 동아시아용 10년간의 우선판매권을 취득하는데 합의하였다. 마루베니는 아그렙코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항만터미널 업체인 테르로구사에 대해 출자비율을 25.5%로 확대하여 1,880만 달러가 되었다.

- ☞ 출처: 중국 등의 남미에 있어서 자원 에너지·식량 확보의 동향과 영향(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해외조사부, 2006.3월)

# 국제 곡물가 급등과 바이오연료 문제\*

주 이태리 대사관 농무관 서해동

## 1. 서론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고 특히 외화가 부족한 에너지 대외의존국의 경우, 유가 급등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대금결제문제가 심각한 현실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분야도 유가급등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비료, 농약, 비닐, 파이프 등 각종 농자재 가격과 농업용 유류 및 전기가격 등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농업 생산비 증가, 나아가 식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알제틴 등이 식량 수출 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고 식량순수입국가, 특히 저소득 국가의 경우 식량안보(food security)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주요 선진국의 하나이자 EU내 두 번째 농업국가인 이태리 조차 밀가루가격 상승으로 주식인 파스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가히 전세계적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 본 글은 관련 FAO 및 IFAD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특히 제31차 IFAD 총회 (2008.2.13-14) Round Table 2 Discussion Paper "Biofuel expansion, challenges, risks and opportunities for rural people"와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를 많이 인용했음

이러한 고유가 여건하에서 궁극적으로 고갈이 불가피한 화석연료의 한 대안으로서 2-3년전부터 바이오연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파급영향 또한 엄청나다. FAO, IFAD 등 농업분야 국제기구도 이 바이오연료가 농업분야, 특히 빈곤 농업국가에게 새로운 기회요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협요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최근 약 2년간 국제 농산물 가격의 급등원인으로 중국·인도의 경제성장, 고유가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 증가, 국제 운송비의 증가, 가뭄·홍수·폭염 등 기상이변, 심지어는 담합, 사재기 등 여러 요소가 제시되지만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농작물 소비증가와 기존 식용 농산물 생산농지의 바이오연료 작물 경작지로의 전환에 따른 사료 및 기초식량 가격의 상승이 중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더욱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더욱 큰 규모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따른 안정적 농업생산의 위협 그리고 이의 근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관계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기후변화 추세를 완화\* (mitigation) 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바이오연료가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바이오연료의 기후변화 중립성(neutrality) 여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치열하다.

본 글에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유가급등, 기후변화, 국제 곡물가격 급등문제와 상호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바이오연료 문제에 대해 논의동향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크게 볼 때, 2050년까지 25억의 추가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여하히 기후변화에 따른 제반 위험을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계 식량생산을 충분히 증대시킬 것이냐의 문제

†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크게 그 추세를 완화(mitigation)시키는 전략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 역량을 키우는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 2. 바이오연료 산업 현황

바이오연료는 바이오에너지\* 중 연료목적(주로 운송차량)으로 생산되는 것을 칭하며 주로 액체바이오연료(liquid biofuel)를 말한다. World Bank에 따르면 2006년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총 생산량은 약 400억 리터로 이중 90%가 브라질과 미국에서 생산되었다. 바이오디젤(bio-diesel)‡ 은 약 60억리터가 생산되었는데 이중 75%가 EU 국가(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생산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6/2007년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해 자국 옥수수 생산량의 20%를 사용하였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생산 역사가 193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바이오에탄올 생산역사가 매우 길고, 가장 경쟁적인 바이오연료산업을 갖고 있으며 생산되는 사탕수수의 절반을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팜유(palm oil), 인도의 경우 유지성분이 많은(oil-rich) 야트로파(jatropha)나 폰가미아(pongamia)와 같은 비식용 식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고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온두라스·나카라과·파나마 등 몇몇 중남미국가들의 경우 사탕수수를 통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전망결과가 있으나 현재 세계 전체 운송에너지 소비의 약 1%를 차지하는

\* 전분계통(옥수수, 밀, 보리, 쌀, 카사바 등), 당질계통(사탕수수, 사탕무 등), 유지계통(유채, 해바라기씨, 야자유, 야트로파, 대두 등), 농림부산물(짚, 간벌목, 옥수수대 등), 이외 퇴비, 가축분뇨, 음식물 찌꺼기, 하수오니 등 다양. 그러나 바이오에너지의 효율 및 산업화 수준은 품목별 생산비,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수준 등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 품목별로 상이한 상황

† 주로 사탕수수, 옥수수 등으로 부터 생산되고 있으나 밀, 보리 등 다른 전분류 계통 곡물을 통해서도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가능하며 木材素(lignin)와 纖維素(cellulose)를 지닌 풀, 목재, 임업부산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도 현재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상태. 이 경우는 농업용 식량 및 사료작물 생산과 경쟁관계가 아닌 점이 장점의 하나임

‡ 주로 유지성분을 지닌 유채(rapeseed), 콩, 야자, 코코넛, 야트로파(Jatropha) 등을 원료로 하여 산업용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 2세대 바이오에너지로 알려진 목재와 짚(straw) 등에 대해서도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바이오연료가 2020년에 가서는 5-6%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FAO는 전체 경작가능 농지 중 바이오연료 생산 토지가 현재 1% 수준이나 2030년까지 3% 수준으로 증가하고 2050년까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FAO는 고유가로 최근 일부 빈곤국가의 경우 연료비를 보건의료비에 비해 6배나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10억불 수준에 달하는 바이오연료 산업이 대응여하에 따라 빈곤국가 농민, 나아가 농촌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한데, 크게 소비측면 인센티브(세금 인하), 생산측면 인센티브(세금인하 또는 직접보조) 그리고 기존 자동차유류와의 혼합(blending) 사용 의무화 등이 있다. 그런데, 현재 각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바이오연료의 경우 경제성이 높지 않아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 내지는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간 55-73억불에 상당하는 총 200종 이상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지원 수준이 1년에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석유상당치(petroleum equivalent) 1리터 당 0.38-0.49불, 바이오디젤의 경우 0.45-0.57불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탕수수 재배여건,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양호한 바이오연료 산업여건을 갖춘 브라질조차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WDR, 2008).

### 3. 식량과 연료(Food versus fuel)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농산물(특히 사료농산물) 수요확대로 2006년 옥수수 가격이 23% 상승하였다. 이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바이오에탄올 생산프로그램이 주목되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가로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 확대로 재고가 줄어들어 국제 곡물가를 급등시키는 결과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유지작물인 야자, 콩, 유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레저 차량 1대의 연료통을 한번 채우기 위해 바이오에탄올 100리터당 240kg에 상당하는 옥수수를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경우 그 옥수수의 양이 한 사람이 일년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점에서 식량과 사료간 trade-off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06/2007년 생산된 옥수수의 1/5을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했으나 가솔린 소비대체 효과는 3%에 불과했다고 한다.(WDR 2008).

지난 2월 중순 발표된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No1, 2008" 지에 따르면, 2007년 12월 이후 모든 주요 곡물들이 높은 가격수준을 계속 유지하였고 일부는 가격이 계속 증가 추세이다.

밀의 경우(미국 No.2 Hard Winter, f.o.b 기준) 2008년 1월 톤당 가격이 381불로 2007년 12월 수준과 같으나 2007년 1월 208불에 비해서는 가격이 83%나 증가하였다. 옥수수의 경우도(미국 No.2 Yellow, gulf, f.o.b) 2008년 1월 톤당 가격이 206불로 2007년 12월 178불에서 28불 상승하였으며 2007년 1월 164불에 비해서는 26% 가격이 상승하였다.

쌀의 경우(태국 백미, 100% 2등급, f.o.b 기준) 2008년 1월 톤당 가격이 385불로

2007년 1월 318불에 비해 21% 상승한 수준으로 2007년 9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FAO는 적어도 2008년 3월까지는 이러한 가격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국제 곡물가의 경우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010년까지 옥수수 가격이 20%, 2020년까지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유지류(oilseeds)의 경우 2010년까지 26%, 2020년까지 76%, 그리고 밀의 경우 2010년까지 11%, 2020년까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FAO의 경우 사료작물의 경우 2016년까지 15%의 가격상승을 예상하면서도 밀의 경우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농산물 가격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아왔는데 특히, 에너지 투입이 많은 집약농업(intensive farming practices)을 행하는 국가에서 둘 사이의 깊은 연관성이 나타난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과 바이오에너지 전환기술의 발달로 브라질의 경우 사탕과 바이오에탄올 가격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가격과 농산물 가격간 연관성이 더욱 높아질 경우, 에너지가격이 사료가격의 上限(ceiling price)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바이오연료 생산비의 70%가 사료값인 현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사료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바이오연료 산업이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에너지가격과 주요 농작물의 동시적 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주민의 실질구매력 저하와 식량안보 위협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빈곤국가,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에너지 이용여건도 열악하지만 식량의 대외의존도도 높다. 현재의 농산물 가격상승추세가 계속될 경우, 기초 식량작물의 실질 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식량안보

\* 즉, 바이오에탄올 가격이 오르면 사탕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발견된다.

위협 주민이 16백만명씩 늘어나 현재의 2025년에 가서는 12억명의 지구촌 주민이 식량안보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IFAD).

반면, 40여년 이상을 지나 맞이한 이번의 농산물 가격상승이 빈곤농업국가 농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산물 가격 상승 기조는 비교적 단기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나 가격 침체국면은 장기화되어온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작금의 농산물 가격상승 기조가 빈곤 농업국가, 특히, 소농들 (small-scale farmers)에게 실질 소득 증가로 여하히 귀결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FAO나 IFAD는 관심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농들의 조직화를 통한 교섭력 (bargaining power) 증대, 농촌지역의 인프라 확충, 농민의 시장정보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강조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경우도 대응여하에 따라 빈곤 농업국가에게 새로운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연료 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용창출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한 구매력 증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바이오연료 생산이 2012년까지 중국의 경우 9백만, 베네주엘라의 경우 백만, 그리고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 1백만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IFAD 2008 총회 토론자료)

최근 비식용 목재 셀룰로오스 성분 재료(주로 목재 부산물, 곡물 줄기, 볏짚 등)를 통한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가축분뇨를 활용한 메탄 생산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2세대 바이오연료로 불려지는 전자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경제성이 확

보이지 않은 pilot study 수준이나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메탄생산의 경우 소규모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연료 산업의 급성장이 빈곤국가 소농의 영농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단작 기계화 영농형태로 바이오연료 작물재배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농지 없이 전통적·관행적으로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실상 점유하여 경작을 해온 소농의 경우 안정적 영농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고, 거대 기업의 교섭력에 밀려, 적정 수입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와 산업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요구되고 있고 목재·셀룰로오스 성분(ligno-cellulosic biomass)을 재료로 사용하는 2세대 바이오연료(Second-generation biofuels)\*의 경우도 규모의 경제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분석이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농들에게 경제적/생태적 측면에서 적합한 바이오연료 작물의 선택 및, 소농들의 경작권 보호 및 교섭력 향상,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친환경적인 전통적 관행농업을 배제하고 농지를 새로이 개간하는 행위의 지양(특히 deforestation),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에 대해 국제적 인증표시제도 시행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4.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바이오연료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중립성(neutrality) 여부이다. 중립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바이오

\* 세계은행 WDR 2008에 따르면 2세대 바이오연료의 경우 아직 경제성이 확보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상태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까지 수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료의 경우 생육시 흡수한 탄소 만큼이 수확 후 추후 바이오연료로 사용시 방출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대부분의 바이오연료의 경우, 화석연료에 비해 에너지로 사용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데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 중립성 문제를 두고, 바이오연료작물의 생산에서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이클 차원에서 다른 기회비용까지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시 투입되는 질소질 비료의 포함문제, 바이오연료 생산시 사용되는 농기계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포함문제, 더 나아가 농기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포함문제, 바이오연료 운송을 위한 에너지 포함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결과,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분석자료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고 투입 농작물, 생산 방식, 에너지 전환방식 및 에너지 효율 등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진다. 대체로 사탕수수를 통한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S) 배출을 1마일당 80-90%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 콩을 통한 바이오디젤의 경우 GHS 배출을 1마일당 40%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곡물(grain)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다른 작물에 비해 적는데, 1마일당 10-30% 정도 GHS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농업빈국의 경우, 질소질 비료 施肥 자체가 어렵고 노동집약적인 형태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추세 완화효과 측면에서 볼 때, 바이오연료 생산에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는 점이다.

하지만, 토지가 바이오연료 사용 목적으로 개간될 경우, 이에 따른 기후변화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바이오연료 생산 목적으로 전통적 재래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농작업이 대규모 단작형태(monoculture)의 기계화 경작으로 전환되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예: 산지)이 개간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브라질의 경우, 사탕수수 생산면적이 환경민감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14-15백만ha의 土炭지역(peat land)이 팜오일 경작을 위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산림지역이나 습지, 초지로부터 생산된 바이오연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탕수수와 같은 일부 작물의 경우 생육에 상당한 량의 물을 필요로 하나 야트로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의 량의 물을 필요로 한다. 건조지역의 경우, 물문제가 농업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부문간 물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탕수수와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물 보다는 가뭄에 강한 sweet sorghum과 같은 비식용성 수수류로의 전환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야트로파(jatroha)나 폰가미아(pongamia) 처럼 非식용 작물이면서 일반작물이 생장하기 어려운 한계지(marginal lands)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의 경우, 식용작물과의 대체문제도 피하면서 한계지의 토양의 질도 높이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 작물의 경우, 조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농들에게 적합한 작목으로 거론된다.

## 5. 결론 및 시사점

바이오연료가 최근의 국제 곡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으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작여건상 이러한 바이오연료 산업이 주는 기회를 국내적으로 활용하는 데 일정 수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유채를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 시범사업과 2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계속 경주해 나가되, 최근 바이오 연료 생산에 따른 지구 환경차원의 문제점과 주요국이 관련 지원제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견지에서 지난 2월 중순 FAO에서 개최된 UNEP생물다양성협약(CBD) 제 13차 과학기술자문기구회의에서 EU를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가 바이오연료의 환경피해 문제를 심각히 우려한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FAO 사무국이 지난 2월 중순 발표한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No.1, 2008" 지에 따르면, 2007 세계 곡물생산량은 2,102.6백만톤으로 추정되나 2007/2008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120.3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전세계 차원에서 보아도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소하나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이 결과, FAO는 2007/2008 세계 곡물재고가 8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405.3백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7/2008 예상 세계 곡물소비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제 곡물 수급상황과 바이오연료 생산확대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관련 국내 연구소와 민간 협회, 농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미국, 브라질, EU, 알젠티, 중국 등 각국의 바이오연료 생산 동향과 시카고 국제선물시장 등을 통한 국제 곡물선물시장 동향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각종 농업관련 국제기구 및 IFPRI, USDA 등의 국제 곡물시장 전망 분석자료 등의 분석 등을 통한 국제 곡물가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의 구축·가동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 수준의 비축관리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유통시장의 효율화, 해외 시장 개척 노력 등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 시스템 개관

통상협력과 사무관 장재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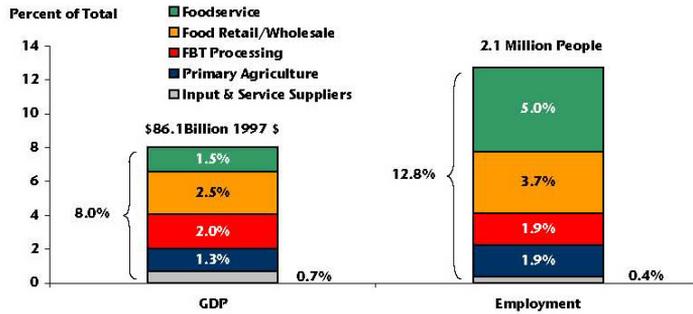
이 자료는 금년 2월 캐나다 농업·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07년도 캐나다 농업·농식품 시스템에 대한 개관 보고서로 주요 농업정책, 최근 동향과 전망 등을 담고 있다. 농업과 농식품은 농가에 투입되는 자재 시장(farm input market), 1차 농업(primary agriculture), 식품, 음료, 담배 가공업과 도·소도매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 본문 요약(Executive Summary)

### ● 시스템의 복잡화 및 높은 수준으로 통합화

캐나다에서 농업이 경제 전체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해 왔지만 업계의 절대적인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해 옴. 특히 모든 공급 체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농업과 농식품 시스템은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 경제에 860억불(명목소득 1997년 달러 기준) 또는 8% 수준 기여하였으며, 약 2,100천명 정도의 캐나다인을 고용함.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생산·유통시스템에는 투자재·서비스 제공자, 1차 농업생산자, 식품, 음료, 담배(FBT) 가공자, 식품 도소매자, 식품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됨

The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s Contribution to GDP and Employment,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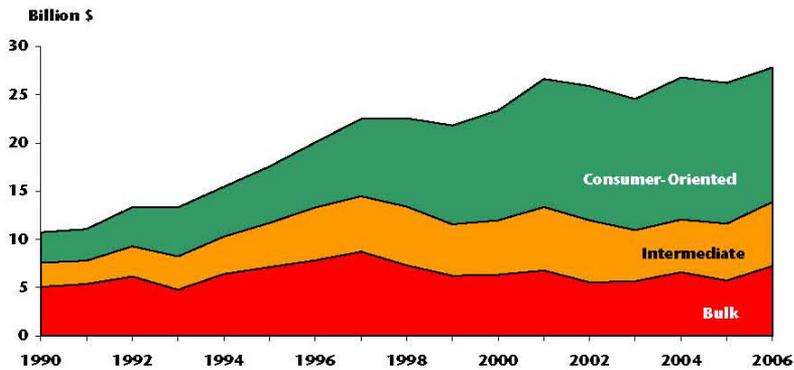


Source: Statistics Canada and AAFC calculations.

농업과 농식품의 중요도가 지방마다 차이가 나며, 캐나다 중부와 동부지역에서는 식품가공이 중요하고, 1차 농업은 캐나다 서부 여러 주(Prairies)에서 더욱 중요함.

농업과 농식품 시스템은 FBT 가공, 식품의 도·소매 및 식품 서비스가 대부분 성장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10년 이상 해마다 평균 2.4%의 비율로 성장해 왔음. 동 시스템의 성장은 수출, 특히 소비위주 상품의 수출이 주도해 왔음. 2006년도에 업계의 총 수출판매는 2백 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50%는 소비지 지향적 상품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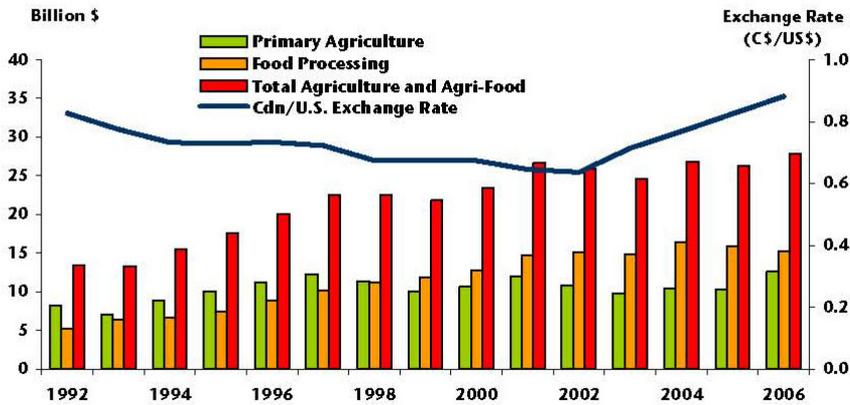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Export Sales (BICO), 1990-2006



Source: Statistics Canada and AAFC calculations.

세계 농식품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캐나다는 지난 15년간 시장상의 변화와 무역 자유화에 대응하여 왔고 세계 농업과 농식품 산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북미시장에서는 농업과 농식품 교역이 점차 통합되었고, 1991년 이후에는 대미 수출의 4배가 성장하였으며, 대멕시코 수출의 9배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증명함. 그러나 최근 캐나다 달러의 절상은 수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

**Exchange Rate Appreciation and Agriculture and Agri-Food Exports, 1992-2006**



Source: Statistics Canada and AAFC calculations.

업계에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는 개발사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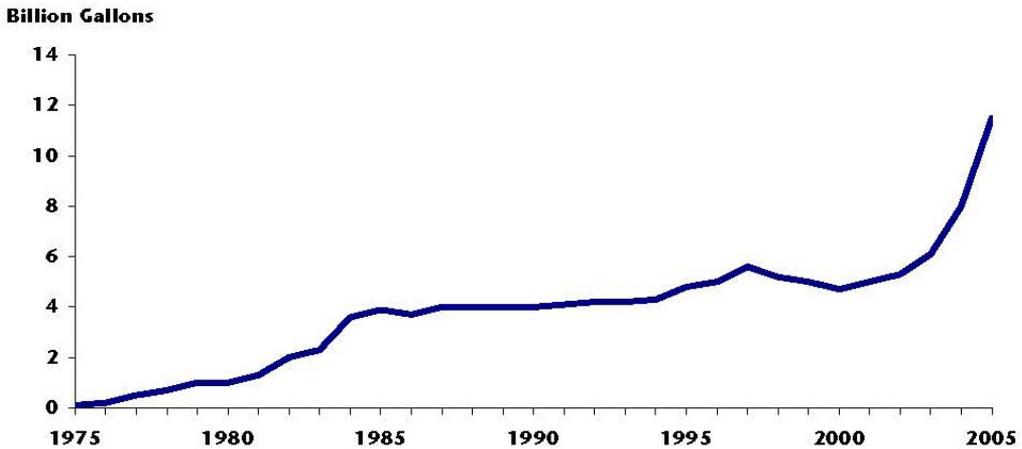
- 소비자의 요구 변화
-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대와
- 신흥 경제국가로부터 국제적인 경쟁력 확대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 변화는 농업과 농식품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캐나다의 소비자와 다른 국가에서는 품질과 안전성(quality and

safety)을 보장받고 더 다양화되고 좀 더 편리하면서 몸에 유익한 식품을 선택할 기회를 요구하고 있음. 환경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식품 수요에 영향을 미침. 농업과 농식품 분야는 우수한 시장을 다양화 할 수 있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상품, 기능성 식품과 기능 제품(functional food and nutraceutical ; FFN)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국제적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시장의 성장은 사료작물(feedgrain)과 채유용종자(oilseed)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은 농업생산자들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음. 반면에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곡물과 채유용종자 생산자의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사료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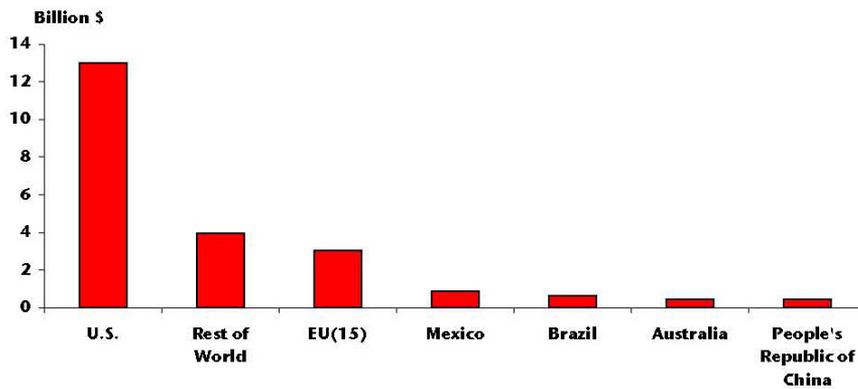
**World Ethanol Production, 1975-2005**



Source: www.earthtrends.com.

인도, 중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 경제국과의 경쟁의 심화로 캐나다의 농업과 농식품 시스템은 도전을 받고 있음. 캐나다는 이제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와 비전통적인 교역상대국들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과 농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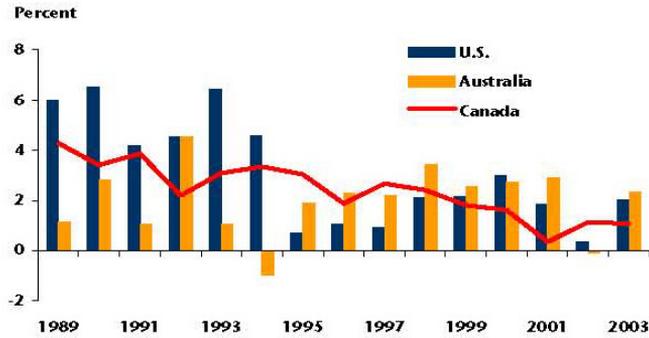
**Value of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Imports by Country of Origin, 2006**



Source: Statistics Canada and AAFC calculations.

이러한 새로운 경쟁을 마치고 위해서는 업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혁신적 이어야 함. 1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둔화되고 있지만 식품가공업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호주를 능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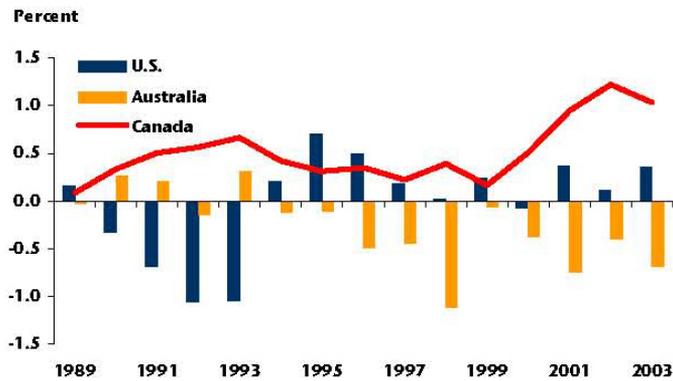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Primary Agriculture, 1989-2003**



Source: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re, Industry Growth Accounting Database, 2006.

Note: Includes forestry and fishing.  
Ten-year simple moving averag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1989-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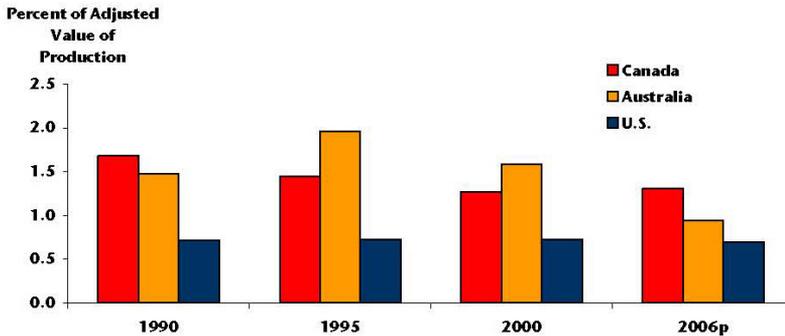


Source: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re, Industry Growth Accounting Database, 2006.

Note: Ten-year simple moving average.

연구와 개발(R&D)에 대한 지출은 혁신과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투자임. 그러나 업계 생산성에서 캐나다의 공공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도에는 1.7%, 2005년도는 1.3%로 감소한 반면 업계 GDP 에서 민간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이하로 낮은 상태임.

**Public R&D Support to Agri-Food Sector as a Share of Adjusted Value of Production, 199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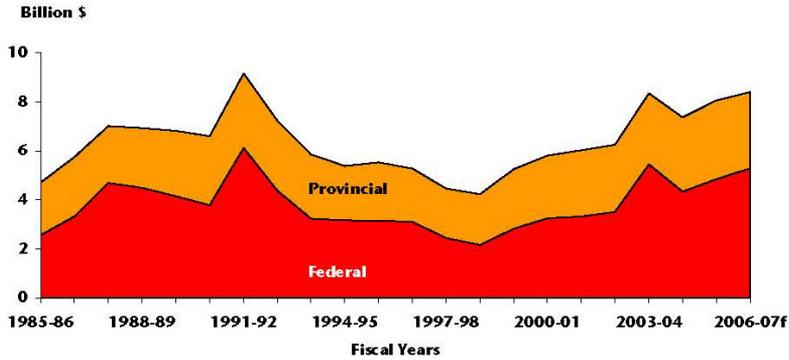


Source: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7.

Note: 2006 figures are preliminary.

정부의 지원은 업계가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음. 농업과 농식품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GDP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2006 - 2007 회계 연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은 84억불, 업계의 40%로 추정되며, 2003-2004년도 보다 약간 낮은 상태임. 프로그램에 의한 지출은 업계에 대한 정부 지출의 51% 정도를 차지함. 과거 몇 년 동안 생산 조정가치비율 (adjusted value of production)로서 캐나다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국에 비해 높았으나 EU(15) 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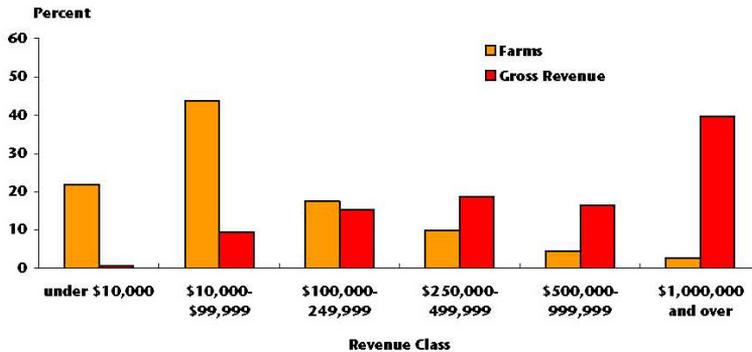
**Government Expenditures in Support of the Agriculture and Agri-Food Sector, 1985-86 to 2006-07 Fiscal Years**



Source: AAFC.  
 Note: 2006-07 figures are foreca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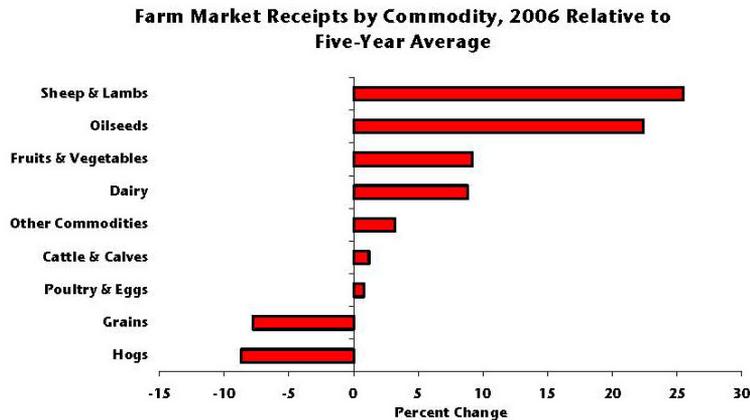
업계는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고 있으며, 업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변화되고 통합이 강화되고 있음. 캐나다의 인구 조사통계에 따르면 농업, 농장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지방에서 평균 농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음. 비록 대규모 농장(250천불 이상 매출 농장)은 2006년도 기준 전체 농장의 1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함. 10년 전 대규모 농장은 전체 농장의 10%정도이고, 전체 생산량의 56%였음. 매출이 250천불 이하의 소규모 농장은 동기간 내 90%에서 83%로 떨어짐.

**Share of Farms and Gross Farm Revenues by Farm Size, 2006**



Source: Statistics Canada, 2006 Census of Ag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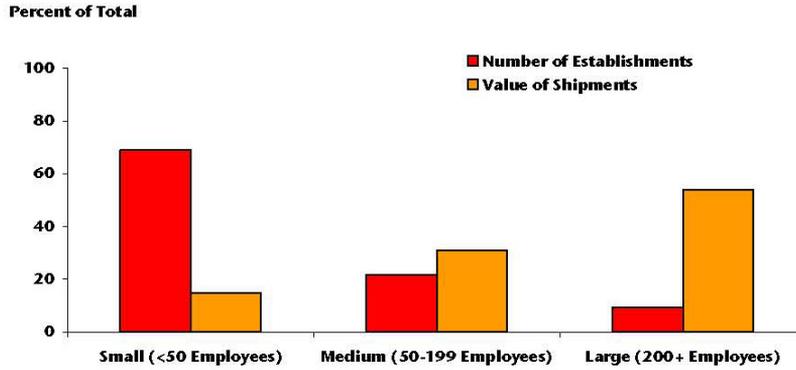
업계의 성과에는 달러가치의 절상과 상품의 가격 상승 같은 최근의 도전과제가 반영됨. 2006년도에 대부분 농가의 농산물시장(farm market) 수익은 지난 5년 평균대비 상승하였음. 안정적인 농가 수익에 중요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불은 감소함.



Source: Statistics Canada.

구조 조정은 식품 가공 및 식품 소매 분야에서도 관찰됨. 2005년도에 대형 식품 가공시설(200인 이상 고용)은 전체 시설의 단지 10% 정도였지만 전체 생산액의 54% 정도를 차지함. 캐나다 식품 소매부문은 1990년대 후반에 대형 5대 소매업체에 의한 매출은 10년 전 50% 보다 증가하여 전국 식료품 판매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였음.

**Distribution of FBT Processing Shipments and Number of Establishments by Employment Siz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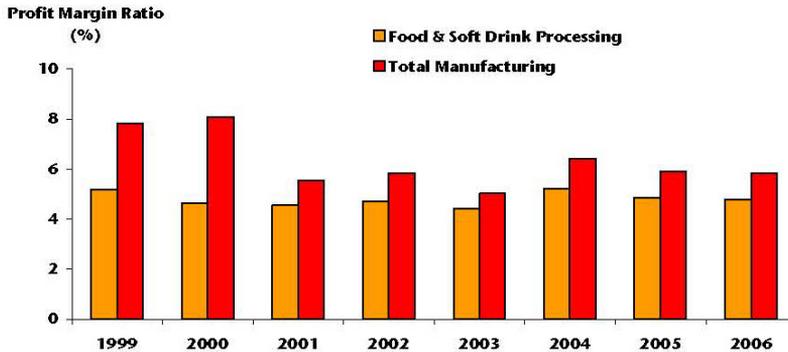


Source: Statistics Canada.

Note: \* This is not comparable to previous information due to changes in definitions.

이러한 구조 조정으로 식품제조와 식품 소매업계 양쪽 모두에 안정된 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것은 양 업계가 극도의 비용 압박과 경쟁적인 상황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함. 1990년대 후반 이후, 식품과 소프트 음료 가공업계의 이윤은 약 4.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식품 및 음료 소매부문에서는 약 2.8% 정도의 이윤을 보임.

**Profit Margin Ratio in Food and Total Manufacturing, 1999-2006**



Source: Statistics Canada.

Note: See glossary for definition of the profit margin ratio.

# 2007-2014 EU농산물 시장 및 농가소득 전망

주 EU 농무관 조재호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2007-2014 EU 농산물시장 및 소득 전망 보고서 내용입니다.

## 1. 개 요

- EU 집행위는 곡물생산 및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14년까지 EU 농업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곡물가격은 진폭은 있겠으나 지난 10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06년 -2014년간 실질 농가소득이 18.1% 증가하나 회원 국가별 편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 (구 EU 회원국은 7.1%, 신규회원국은 31.2% 증가)
- 그러나 DDA 농업협상, 유로/달러 환율변동, 재생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GMO 승인 정책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

## 2. 곡물시장

- EU 경제성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며 우유쿼터를 2008년부터 2% 증가시킨다는 가정하에 중장기 시장을 전망
- 세계적인 식량수요 증가, 바이오연료시장의 성장과 곡물생산증가의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기후변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정책 등 단기적 요인에 의해 최근 몇 달간 곡물가격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높은 곡물가격 수준이 유지될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가격수준보다는 낮겠지만 지난 10년간 곡물가격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기후변화, 바이오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 곡물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
- 미국의 옥수수 수요 증가는 전반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을 이끌어 EU 보리, 옥수수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특히 옥수수 수매의 단계적 폐지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구조적 옥수수 과잉생산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
  - 바이오에탄올용 곡물생산은 지속적으로 성장(2013년 18.4백만톤)할 예정이며 바이오 디젤 생산용 채유용 종자의 생산(2013년 21.4백만톤)도 크게 증가할 전망

## 3. 축산물 시장

- 쇠고기는 낙농분야의 구조조정, 생산 비연계 직접지불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7.6백만톤 생산감소
  - 쇠고기 소비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여 2014년까지 743천톤에 이를 전망

- 돼지고기는 생산, 소비 모두 증가하나 사료가격 상승의 여파로 증가속도는 둔화
  - 제3국 수출은 저 생산비 국가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나 EU 역내 교역은 늘어날 전망
-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시장상황이 양호
  - 브라질, 태국으로 부터의 닭고기 수입이 단기적으로 늘어나고 닭고기 수출은 점차 줄어들어 EU는 닭고기 순 수입국으로 전환될 전망
- 육류소비는 2006년 1인당 84.5kg에서 2014년 87.2Kg으로 늘어나고 돼지고기가 전체의 50%, 닭고기는 28%를 차지
- 우유쿼터 증량으로 우유생산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나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되며 치즈 생산은 EU 역내 소비증가로 10% 증가

#### 4. 농가소득

- 2006년 -2014년간 실질 농가소득이 18.1% 증가하나 회원 국가별 편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
  - 구 EU 회원국(EU-15)은 7.1%, 신규회원국(NMS)은 31.2%,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87.6% 증가).

# 뉴질랜드 농업개혁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서기관 정상천

## 1.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배경

### 가. 뉴질랜드 농업역사

- 뉴질랜드 농업은 13세기부터 정착한 마오리인들이 고구마, 타로(taro), 박(gourd) 등을 재배하면서 시작되었음.
- 1840년 영국의 지배이후 뉴질랜드는 곡물과 양모를 영국에 공급하는 배후 농업지역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냉장운송이 가능해진 19세기 후반부터 육류와 유제품을 영국과 영연방에 수출하면서 안정정인 경제성장 구가
  - 뉴질랜드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좋은 가격을 보장받고 영국/영연방에 수출됨으로써 부를 축적
- 영국이 제공하는 육류가공 기술과 투자 자본을 통해 1950년대에는 1인당 GNP가 세계 5위의 경제부국으로 성장

## 나. 영국의 유럽공동체(EC)가입과 안정적 시장의 상실

- 뉴질랜드 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는 외부충격으로 침체에 빠짐
  - 1966~68년 세계 양모가격이 40% 정도 큰 폭으로 하락
  - 1973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으로 뉴질랜드 농산물이 영국시장에서 누리던 시장접근 특혜가 폐지됨
  - 19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로 촉발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간섭과 비효율로 제조업부문의 비용이 증대됨. 이는 결과적으로 농자재가격을 상승시켜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켰음

## 다. 농업분야 정부지원 → 농업경쟁력 약화

- 1960년대까지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는 거의 없었으나 1963년 뉴질랜드 정부는 운송과 비료가격에 대한 보조를 실시
- 1974년 농업은행(Rural Banking and Finance Corporation) 설립, 1978년 최저가격지지정책(Supplementary Minimum Prices: SMP) 수립
  - 비료에 대한 보조와 가축사육 두수 확대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 등은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농산물 가격을 더욱 하락시킴
  - SMP는 주로 축산업에 적용하여 국제시장가격보다 정부의 최저지지가격이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였음
- 1982년 뉴질랜드 최대 농민단체인 '뉴질랜드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 of New Zealand: FFNZ)'은 농업보조로 인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며, 보조의 증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
  - 양 사육 농가 수입의 40%는 정부보조였으며, 양고기 생산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65%이상 높았음(전체 농산물 생산에 대한 보조율은 최대 30%까지 상승)

## 2. 뉴질랜드 농업개혁 추진과정

### 가. 1980년대 초반 금융위기 발생

- 1950~1960년대의 복지국가에 대한 향수(welfare mentality)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줌
  - 복지정책 유지를 위한 재원은 외채로 충당
- 정부는 점증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비하고 수입대체산업의 보호와 수출 촉진을 위해 에너지,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으나 외채와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
- 1982년 금리, 임금, 물가를 전면 동결하는 정책을 실시.
  - 재정적자는 GDP의 9.2%로 증가

### 나. 경제개혁 단행

- 1984.7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정책에 착수
  - 경제개방화(농업 보조금 철폐), 정부생산성 제고, 복지축소 등
- 시장지향형의 경쟁구조를 지향(market-driven competition was the best way to achieve economic growth)하여 사기업 및 정부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경제분야에 걸쳐서 동시에 시행

### 다. 농업부문의 주요개혁

- 농업부문 관련 경제개혁
  - 농업보조철폐(1984~1986)

- 농업조세 감면 철폐(1985)
  - 수출보조 철폐(1985~1987)
  - 농업서비스 사용자부담원칙 도입과 적용(1985~1990)
  - 국영 농촌은행(Rural Bank) 매각(1989) 등
- 농업관련 조직 개혁
- 1984년이전의 생산자위원회(Producer Board)와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는 소비촉진, 시장개입을 통한 국내 및 국제시장의 가격안정과 수출증대, 수출허가권 행사, 농가로부터의 농산물 독점 수매를 통한 공급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와 독점권으로 인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1984년 이후 기능축소
    - 1986년 생산자위원회의 중앙은행 장기·저리 펀드 사용 금지 조치
  - 농수산부 조직 및 기능개편
    - 1984년 개혁전 농수산부 10개국 5,600여명의 직원 → 개혁이후 5개 사업부서 2,400여명의 직원 규모로 축소
    - 개혁 이후 농수산부의 품질인증 및 검사 업무는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
    - 농수산부는 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및 감독기능만 담당
    - 모든 농업관련 연구는 국립연구기관(Crown Research Institutes)으로 이관, 경쟁체제하에서 연구사업 시행

### 3.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과

#### 가. 농업구조의 변화

- 양, 소, 사슴 등 목축분야 중심 농업에서 낙농, 원예, 화훼, 과수, 양봉 등으로 농업경영이 다각화 됨

- 1960년대~1970년대말 까지 농업에 대한 보조가 높은 나라에서 현재에는 OECD 국가중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가 거의 없는(가뭄, 한발, 자연재해시 피해 보조는 예외) 국가로 변모
  - 농업보조수준이 1986년의 20%에서 1989년에 3%로 감소 (2005년기준 2.6%로서 OECD 평균인 29% 보다 매우 낮음)

#### 나. 국제경쟁력 향상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쇠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양모, 사과 등임
  - 뉴질랜드 쇠고기(세계전체 수출시장의 5%), 양고기 산업(세계전체 수출시장의 38%)은 매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낙농제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인 분유도 1984년 농업개혁 이후 가격 경쟁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양모와 사과도 호주와 국제 평균 가격에 비해서 경쟁력이 향상되었음

#### 다.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

- 개혁전 뉴질랜드 농가는 시장수요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과잉생산을 유발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악순환 지속
  - 과거에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생산 농가의 판단에 따라 생산품목이 결정되었으나, 현재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기초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방향으로 변모

향후 10년 유럽식품 및 육류산업에 대한 도전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경희



사랑과 금붕어의 교훈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답답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붕어는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요,  
달랑 하나있는 수초를 보고  
'와~ 이쁘다' 감탄하고 유리벽까지 가죠.

그리고 다시 와서, 아까 그 수초 본 걸 잊어버리고  
또 '와~ 이쁘다' 하고 감탄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더 행복할 때가 있는 거겠죠?  
옛 사랑은 어서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사랑한다' 는 현재 진행형이고 '사랑했었다' 는 과거니까요.

## 향후 10년 유럽식품 및 육류산업에 대한 도전

- 제2차 OECD 세계식품경제회의 발표글 중에서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경희

2007.10.18-19일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는 OECD 농업무역국과 독일 농업부, LEI-Wageningen UR이 공동 주관한 《미래식량공급체인의 정책과 연구 의제에 관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식품경제 : 글로벌 이슈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3개 분과- 세계화 추세 속에 부가가치의 창출과 공급체인의 관리, 새로운 식품정책 및 공급체인관리,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문 가운데 네델란드 VION Food Group에서 온 Siem Korver의 글이 흥미롭기에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식품 시장과 지역별 식품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유럽 식품 산업은 식품의 질과 전문화를 강조하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다. 앞으로의 세계화는 이러한 경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식품회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이를 시장 기회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식품 회사들이 부가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유럽 식품 및 육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한 변화들이다.

## 1. 세계화

WTO 논의 하 세계시장의 자유화는 세계무역에 영향을 끼친다. 세계화는 특정 식품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동물 복지와 식물 처리와 같은 비교역적 이슈들은 현재 WTO 논의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2013년 이후로는 지금과 같은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013년과 그 향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미래 CAP의 틀은 적어도 전체 식품 체인(entire food chain)과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화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무역을 막는 기타 다른 장애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수의사 및 검역관과 관련한 새로운 장벽들이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잠재적인 이슈들에 집중해야 한다.

## 2. 성장 소비와 소비 패턴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소득과 단백질 및 육류 소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측면은 식품 소비의 발전이다. 소득이 낮을 경우, 우리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을 구성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생존 전략을 취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기초 상품'에서 '준비된 식사, 식이요법, 기능적·유기적 식품'으로 바뀌어 간다.

### 3. 식품체인(food chain)의 통합

전 세계적으로 소매업과 식품서비스업에서의 통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10개의 소매업자들이 7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규모의 경제와 근본적 혁신의 필요성이 이러한 통합 과정의 주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든지 미래든지 세계시장에서 우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 소비자 경향 : 보다 세련화된 시장에서 , 행복(wellbeing) · 편리함 · 즐거움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이것을 채워주는 사회적 수요들(예,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생산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 ▶ 인구통계 : 인구성장, 노령화, 이주, 도시화 등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
- ▶ 혁신과 기술 : 이것은 국제적 경쟁에서 중요하다.
- ▶ 소매업과 식품 서비스 수준에서 발달
- ▶ 규모의 경제 : 혁신 기회와 비용에 있어서 규모의 이점이 있다.
- ▶ 정부 및 기관의 정책

그러나 세계 식품시장은 지역장터를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관찰될 수 있다.

- ▶ 국제교역은 여전히 전체 생산과 소비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육류의 경우, 5-7%에 그치고 있다.
- ▶ 신선한 식품과 가공된 식품과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 ▶ 지역, 대륙 등에 따라 사회적 가치, 문화, 식습관에서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 ▶ 식품안전기준, 식품 법령, 영양기준에 관한 세계적 기준은 없다.

- ▶ 사회적·환경적 기준 또한 세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 ▶ 비관세 장벽이 중요하다.

지역조달(regional sourcing)과 글로벌조달(global sourcing)에 관하여 특정 분야 및 식품별로 여러 전략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이러한 전략들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에 따라 다르다. 신선 육류와 신선 유제품은 지역 시장을 위한 지역조달(regional sourcing)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생산방법, 물류, 배송, 보존 기술에 관한 상품 상세정보 및 시장적응(market orientation)과 관련이 있다. 반면 가공식품은 특정상품, 제조, 품질사항 등에 따라 글로벌조달(global sourcing)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10년간 식품 사업은 소비자 행동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지역조달(regional sourcing)과 글로벌조달(global sourcing)이 결합되면 세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 인용자료

"The Challenge for European food/Meat Industry during the next decade", Siem Korver, VION Food Group, 《Conference on the food economy: Global issues and challenges》, 18-19 October 2007, Scheveningen, The Hague, Netherlands.

## 해외 농업현장 방문 후기

### 1. 총리 자원외교관련 사전준비출장을 다녀와서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황인식

### 2. FOODEX JAPAN 2008 참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주현정

## 성공7단계

1단계 [꿈] 비전이자 목표.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바로 꿈이다.

2단계 [끼] 타고난 능력

이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주무기를 뜻한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차별화 된 끼를 발견해 내고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한다.

3단계 [피] 기획력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성공으로 가는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4단계 [끈] 인맥

과거엔 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뺨’이나 연줄을 뜻했으나 이제는 인간관계, 폭넓은 사회성, 네트워크십 등을 가리킨다.

5단계 [강] 추진력

구상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부딪쳐 실제에 적용시켜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배짱과 오기가 요구된다.

6단계 [꿀] 모양이나 생김새

친밀한 얼굴, 개성있는 이미지, 멋지고 세련된 제품디자인,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감각. 이 꿀은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7단계 [꾼] 전문성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성공을 만드는 법칙은 어느 하나의 힘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꿈, 끼, 피, 끈, 강, 꿀, 꾀 이란 성공을 이루는 7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갖추어 나갈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 총리 자원외교관련 사전준비출장을 다녀와서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총 4개국 -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황인식

1. '08년 5월중 국무총리님의 중앙아시아 4개국 자원외교순방에 앞서 정부차원의 준비단을 구성, 현지파견하여 각 분야별 협력방안을 사전에 모색해 보기위해 '08.3.29(토)~4. 9(수)까지 12일간 본인은 한국농촌공사 해외사업처 손혁준 과장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이번 방문단은 정부측에서는 지식경제부 제2차관님을 단장으로 하고 총리실,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정원 등 7개부처 12명이 참여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석유공, 가스공, 한전, 토공, 농촌공, 대우, 코오롱, SK 등 내노라 하는 대표공사와 방문국가별로 자원외교와 관련 있는 업체들이 (국가별로 평균 20명~40명)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단중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① 농림분야의 국가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② 추진중인 국제협력사업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며 ③ 우리의 해외농업 자원 확보를 위한 진출 가능성을 진단하는 일을 주로 수행하였다.

## 방문단 여행 일정표

일 시		출발지	도착지	비 고
3.29	09:50 - 13:40	인천	방콕	OZ6761
	19:15 - 00:05	방콕	타슈켄트	HY534
3.30	전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체재		
3.31	전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체재		
4.1	07:15 - 10:30	타슈켄트	모스크바	HY603
	12:50 - 16:35	모스크바	바쿠	S73355
4.2	전일	아제르바이잔 바쿠 체재		
	20:00 - 22:00	바쿠	모스크바	J2854
	00:20 - 05:25	모스크바	아스타나	UN203
4.3	전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체재		
4.4	09:00 - 10:40	아스타나	알마티	KC952
4.5	07:25 - 10:10	알마티	이스탄불	KC911
	21:05 - 02:45	이스탄불	아슈하바드	TK1362
4.6	전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드 체재		
4.7	전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드 체재		
4.8	01:15 - 05:30	아슈하바드	프랑크푸르트	LH613
	19:45 - 13:10	프랑크푸르트	인천	KE906
4.9	13:10	인천도착		



(3.30 우즈베크에서의 조사단 발대식 : 지경부차관외 40명)

## 2. 국가별 자원외교 관련 활동실적

토요일에 우리나라에서 우즈베크으로 가는 직항로가 없어 조사단 일행은 인천에서 4시간을 여행, 방콕을 경유하여 또 다시 4시간을 여행하여 다음날인 일요일 새벽 0시를 지나 우즈베크 수도인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출장기간중 정부기관을 방문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제일먼저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수자원부를 방문하여 상대국 대표를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일 시 : 3. 31(월) 15:00~17:40
- 장 소 : 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 1층회의실

## ● 면담자

농업수자원부(4명)	한 국(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수자원부 투자정책과장 루스탐 이브라기모브</li> <li>• 과장급 에르나자로브 노짐,</li> <li>• 과장급 살리코브 자히드,</li> <li>• 실무자 주마바예브 부즈루크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 황인식서기관,</li> <li>• 한국농촌공사 손혁준과장,</li> <li>• 권오을 3등서기관(대사관),</li> <li>• 통역1명</li> </ul>

## ● 논의내용

## ① 우즈베크측의 농업현황소개

- 인구의 64%가 농촌에서 거주하며 농업이 GDP의 25%수준을 차지
- 구소련 집단농장에서 탈피하여 21만여개의 개인농장에서 농업생산물의 99%를 생산하고 있으며, 개인농장주들로 구성된 203개 소규모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503개의 저수지 3,500여개의 개인소유 양수장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농업 당국자들은 건조한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수자원확보 및 물관리에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 농업기술력은 열악하여 자연농법에 의존, 품질과 생산량이 크게 뒤졌으며, 우수 농산물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소비하고 수확시기에 홍수출하되는 농산물은 단순 건조시켜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라하니 관개배수, 종자갱신, 생산기법, 수확후 관리기술 등 기술의 중요성을 잘알고 있었다.

## ② 상호협력 분야 토의

- 이에따라 우즈베크에서는 농업관개시설, 수자원관리, 농산물가공 및 보관, 수확후 관리, 사료생산시설, 양가축처리를 위한 가축가공, 쌀 생산 등 협력사업의

-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우즈베크에서 농장개발 가능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작, 쓰리다리아, 카쇼까라리아, 까라까우스 박스탄 등 지역을 제시하면서 우리측의 개발참여를 요청하였다.
  - 특히, 염분성 토양인 「아이다꾸루호수」 주변 Steppe지역(여의도 20배)의 농업개발을 위한 기술협조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정확한 현지 여건 등을 알수 없어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외국의 개인이 우즈베크에 농업투자시에는 지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50년 임대로 투자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익부분을 국외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농업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편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우리나라와의 KOICA,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기술협력사업 추진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 ③ 우리 대표단은 우즈베크측 대표단에게 중국보다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누에고치(씨)를 수입해 줄 것을 요청 함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의 식물유전자원 교류분야의 발전적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즈베크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 주요 성과

- 우즈베크 농업부로부터 농업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 희망요청을 받았으며, 자국정부의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4월말까지 문서로 한국에 요청키로 하였다.
- 또한, 협력희망사업을 선정하여 5월초까지 한국측에 제시키로 하였으며 우즈베크의 생산, 면적, 기술등 농업관련자료도 4월말경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하는 등 첫만남에 비해 큰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협력관계도 빠른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3. 31(월) 1층 회의실에서 협의



3. 31(월) 농업수자원부 건물 정문

다음날 새벽 우즈벡에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두 번째 방문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 도착한 것은 4.1일 17시경 이었다. 이곳 정부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와 2개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분야에 포괄적 MOU체결을 희망하여 우리부에 서면으로 요청이 와 있는 상태라 만남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성과가 예상되는 면담이라 말걸음이 가벼웠다.

- 면담 일시 및 장소 : 2008. 4. 2(수) 10:00~12:40, 아제르바이잔 농업부 과학센터 10층 센터장실

- 면담자

농업부(5명)	한 국(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센터장 아사드</li> <li>• 국제협력과장 야구브외 3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 황인식서기관,</li> <li>• 한국농촌공사 손혁준과장, 통역1명</li> </ul>

- 논의내용

- 국가발전에 농업의 역할증대를 위해 양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제르측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농업발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한국정부의 농업분야 기술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으며, 정부간 MOU체결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서명시 참여인사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의 농업분야 협력방법 설명에 대해 이해하고 4~5월중 희망사업을 발표하여 외교루트를 통해 제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농지는 민영화 원칙이라 대부분 민영화 되었으나 국유지도 약7,000ha 정도 있다고 밝혔다.
- 한국기업 또는 민간은 개인간 매매·임대 또는 국유지 임차등의 방법을 통해 농장개발 참여가 가능함을 설명해 주었으며

- 홍수조절, 물관리사업 추진시 한국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뜻도 전달받았다.
- 우리 대표단은 아제르 정부 및 농업부의 조직구성도, 주요업무현황 및 농업관련 주요분야별 통계현황(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등), 아제르측의 농업분야 협력필요사업 항목 및 계획과 함께
  - 농산물 수급상황, 토지이용체계, 협력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제르측은 4월중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 ● 주요 성과

- 한국-아제르간 농업부장관 명의의 농업협력증진을 위한 MOU 체결에 합의 (아제르측 국어로 작성된 『안』을 전달받았음)하는 한편
  - '08. 5월 총리방문시 서명가능 (아제르측은 농업부장관이 참석할 수 있음을 밝힘)하다고 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08년도 시행예정인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확정여부를 총리방문시 확답 해주기로 하고 면담을 끝냈다.
  - 사업명 : 수확후 관리기술 한국연수, 8명 2주간 한국식품개발연구원(60백만원)
- 아제르측 대표단들의 연령이 높고 번역도 원활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정부와의 협력에 사과를 걸고 있는 점은 분명히 느낄수 있었으며 앞으로 양국간 신뢰구축에 농업협력이 큰 도움이 기대 되었다.



평상시 비치하고 있다는 태극기가 인상적



4. 2(수) 농업부 센터장실에서 면담 종료 후

세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가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은 밤 10시에 다시 바쿠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새벽 6시경에 아스타나 공항에 도착하였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후 오후에 농업부를 방문하였다.

- 면담일시 및 장소 : 2008. 4. 3(목) 16:00~17:30, 아스타나 소재 카자흐스탄 「농업부」 9층 국제협력국장실

- 면담자

농업부(4명)	한 국(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국장 타스쿠친</li> <li>• 국제협력과장 악출라코프 메이람외 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 황인식서기관,</li> <li>• 한국농촌공사 손혁준과장, 통역1명</li> </ul>

- 논의내용

- 카자흐측의 농업일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국토면적은 세계9위, 밀생산은 세계5위이나 수출은 세계 2위로 연간90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 지역별 특산물은 북부카자흐, 꼬스타니, 에프모노이스키 등 3개지방에서는 90%가 밀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부카자흐에서는 목화, 동부카자흐에서는 식용유 식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선진농업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 카자흐측은 조만간 WTO가입을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농식품 가공업체의 카자흐 진출 및 기술협력을 크게 희망하고 있었다.
- 카자흐의 농지는 100%가 개인소유이며, 외국인은 개인간 계약에 의해 직접 또는 임대영농이 가능하다고 했다.

- 카자흐정부는 광활한 면적, 높은 생산량 등으로 전세계 60여개국과 농업 분야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표인 국장 본인의 부임21년만에 한국 농업부 공무원들의 방문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협력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 양국정부간 구체적인 상호협력모색을 위해서는 MOU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카자흐 국가체계상 양국간 농업분야 MOU체결은 경제부외에도 법무부까지 거쳐야 가능하므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크게 희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였다.

### ● 주요 성과

- 농업부간의 MOU체결을 위한 초안을 관련절차를 거친후 5월초까지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약속
- 지속적인 협력관계증진을 위해 「하미예프 아자맛」 투자협력과장을 대화창구로 지정하였으며
- 총리 방문시기에 맞춰 카자흐측에서 농업분야 협력요청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
- 국가전체가 공사중이라고 느낄정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이 인근 국가에 비해 부지런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광활한 토지에 선진화된 농업기술의 도입 필요성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호협력사업을 통해 교류가 증대되면 우리 농업이나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클것이라는 감을 느끼면서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 농업부 방문후에는 국내선을 이용, 카자흐의 구 수도인 『알마티』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출신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농장을 개발중인 인사를 만나 면담하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소재 농산물시장(사진 촬영 금지지역)



국제협력국장 방에서 면담 장면



4. 3(목) 카자흐스탄 농업부 건물앞

마지막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역시 비행기 일정으로 알마타공항에 아침 7시에 도착, 터키의 이스탄불에 10시 도착, 낮시간에는 시내관광을 간단히 하고 나서 다시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을 출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드공항에는 다음날 새벽 3시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하였다.

월요일 아침 모든 대표단은 면담을 나갔으며, 농업부와는 장관이 직접 오후 3시에 미팅이 약속 되어 있어 우리측에서는 긴장, 총리실 외교안보 정책관, 외통부 심의관등을 대표로 구성하는 등 의견을 갖춰 면담을 가졌다.

- 면담 일시 및 장소 : '08. 4. 7(월) 14:55~16:15, 투르크메니스탄 농업부 2층 회의실

## ● 면담자

농업부(5명)	한 국(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부장관 오라즈겔디프</li> <li>• 차관,</li> <li>• 식품위 부위원장,</li> <li>• 농업국장</li> <li>• 대외관계국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실 홍윤식 외교안보정책관,</li> <li>• 외통부 백주현 유럽국심의관</li> <li>• 외통부 이윤석서기관,</li> <li>• 지경부 김선애사무관,</li> <li>• 농림수산식품부 황인식서기관,</li> <li>• 농촌공사 손혁준과장,</li> <li>• KOTRA 나운수관장,</li> <li>• 주투르크대사관 송진화서기관(통역)</li> </ul>

- 2층 회의실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은후 양측 참석자의 간략한 소개가 끝난후 투르크측에서는 농업부장관이 직접 준비한 슬라이드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였다.
-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투르크공화국은 농업이 GDP의 18.8%차지, '08년 특별예산 40억불 배정, 농업개혁 3개법 통과 등 농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원중에 있고
- 농가에 10년만기 금리1% 지원, 축산은 92%이상 개인소유, 세금우대로 증가추세 등 성장 중임을 자랑하였으며, 생산기반정비등 종합개발을 위해 투르크 호수 건설사업 (저수량 1,350억m<sup>3</sup>)이 진행중이며 인터넷등을 통해 정보수집이 가능하니 한국 참여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필요시 참고하라고 했으며, 이 나라 농업부는 독일 대학과 MOU를 체결, 학문·기술분야교류를 진행중이며 농업대학도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학문과 기술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투르크측은 농업분야 전문가 양성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과 정보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농업현대화를 위하여 식품가공, 장비, 공장건설에 한국측의 투자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 그러면서 한국측에서 장비제공 또는 공장설립에 즉시 진출가능함을 강조하는 등 우리측 기업들의 진출에 관심을 보였다.
- 이에 대해 우리측 대표단 총리실 홍윤식국장은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면서 수리관개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를 중심으로 정부사업 추진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보관, 가공, 포장, 처리 등 수확후 관리기술 전분야에 협력이 필요한 바 상호 교류하자는 뜻을 표시하였으며 장관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투르크장관은 MOU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먼저 하자는 뜻을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사관을 활용하라고 제의

### ● 주요 성과

- 전문가 또는 실무자간의 양국교류협력을 위한 회의추진에 합의(추후 개별 접촉)
- MOU 또는 상호협정이 양국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
- 주요 농업정보의 상호교류 합의, 창구는 한국대사관을 활용기로 함
- 개방초기인 국가체계상 외국기업 진출시 토지의 직접소유 및 영농은 불가하며 장비, 공장분야 투자는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 인구가 500백만인 작은 시장이나, 개방초기단계로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이 진출하게 될 경우 다방면에 걸쳐 시장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유럽, 일본 등 진출이 없고 우리국민도 대사관 직원의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었음)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드 시내 농산물시장(팩에 들어 있는 일반 우유가 직접 거래)



면담 후 오라즈 겔디프 농업부장관과 함께



4. 7(월) 총리실 국장께서 농업부장관(사진 맨 오른쪽)에게 참석자 소개

### 3. 기타 우리나라 인사 면담

#### 1) 서건이 회장 (前외무부대사, 現골프클럽회장)

- 우리 대표단은 출장기간중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인사들을 만나서 그들의 근황과 함께 정확한 현지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외농업개발에 성진근교수께서 소개해 주신 분들을 만나 유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 우즈베크의 수도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한 날이 일요일 새벽 1시경이었는데 호텔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시내 『레이크사이트 골프장』에서 회장님을 만나 장시간 동안 현지실정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일 시 : 3.30(일) 14:30~18:20
- 장 소 : 우즈벡 타슈켄트 레이크사이드 골프클럽 사무실
- 면담내용
  - 아이다꾸르호수 인근 사막(steppe)지역 개발참여방안 검토
    - 타슈켄트에서 나보이방면 5시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나대지 (국유지, 여의도면적이 20배)를 임대,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
    - 염분성토양이라 방치해두고 있으나, 관개시설을 통해 작물재배가능성을 점검하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고려인 중심으로 구성된 '농민회' 조직화 검토
    - 부지런한 고려인들이 이 나라에 쌀농사 재배방법을 전수하는 등 콜호즈체계 붕괴이후 성공가능한 계층임
    - 현재 법무부쪽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방안 모색필요 (정부측이 정책방향 파악이 필요하며,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무한정 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첨언해 주심)
  - 수리시설 개선
    - 면화, 밀 등의 생산성이 낮아 제품이 질이 크게 떨어지므로 관개 배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고품질 밀은 수입해서 사용 등)
    - 면화 질저하 문제는 '06년부터 현지에 기술이전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계속 문제제기 중 임
  - 흑해 연안에 있는 그루지아(조지아)에 농업투자 적극 권유
    - 세계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나 자원강국이므로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강력히 권장
  - 그 외에도 축산업 현황, 골프장 발전 방안, 자원외교의 어려움, 농업분야의 협력가능성과 신뢰구축 방안등에 대해 많은 시간을 같이 하였으며, 추후 연락을 계속하기로 하고 면담을 마쳤음

## ● 조치사항

- 나대지 개발 참여 및 농민회 활용방안을 우즈베크정부측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리시설개선은 별도 프로젝트 참여 또는 기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업을 확대·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그루지아에 대한 관심과 투자지원은 같이 동행한 우리나라의 외교당국에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3. 30(일) 골프장 입구에서(가운데 사람이 서건이회장)

### 2) ‘코우즈실크레스’ 사장 조세영 박사

또한, 나마가주 지역에서 잠업전업농 1,500농가의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연간 아르바이트 15천명을 고용하는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조박 사님의 건의사항을 우즈베크 농업부 관계관 미팅전에 청취하기 위해 호텔에서 15만원 상당을 투자, 전화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일 시 : 3. 31(월) 10:00 ~ 12:00
- 장 소 : 우즈벡, 나마가루(타슈켄트에서 500km 위치)에 소재, 유선전화
- 면담내용
  - 누에씨 수입창구를 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우즈벡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
    - 연간 수요량의 40%수준이 중국의 로비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중국산이 저질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
  - 전문가 지원 또는 제사공장 건축지원 요망
    - 한국의 우수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하게되면 잠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을 주장
    - 소규모 제사공장, 건조장 등은 지역에 있으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대식 제사공장 신축이 필요(7~8억원 수준소요)하므로 지원을 요청
  - 연간 1억불수준의 면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에 우즈벡산 잠사·실크 수출이 가능
    - 현지 주정부를 통해 상향식 건의를 하려 하나 움직임이 없음
    - 코이카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 요망
  - ※ 이곳에 정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의 우즈벡 인력 송출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빌미로 우즈벡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길 희망
  - 우즈벡 정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누에산업의 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 요청
- 조치사항
  - 정부차원에서의 홍보문제는 귀국후 대한잠사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
  - 누에씨의 우리나라로의 수입선 전환 및 제사공장건축 지원건은 우즈벡정부 대표단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제사공장 건은

『원면성』 소관이라 농업부와 무관하다는 답을 들었음

- 4.4일 우즈벡의 구수도인 알마티 공항에 도착한 직후 공항에 마중나온 우정산업 관계관과 함께 사무실로 이동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당일 저녁 대사초청 만찬이후인 21시에 다시 만나 상호 관심부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음.

### 3) 우정산업 우서환 사장

※ 우정산업은 '01년 카자흐에 진출, 레미콘, 적벽돌, 정미소 등의 기계설비사업 착수

- '08년 현재 시멘트회사 2개, 적벽돌공장 1개 운영중
- '04년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중
- '08. 5월부터는 감자를 시작하여 바이오에탄올, 사료까지 확대예정 (벼농사중심 쓰지쓰따지역에 3,000ha(900만평)을 임대확보, 향후 10개 추가 예정)

● 일 시 : 2008. 4. 4(금) 10:30~12:00

● 장 소 :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우정산업 사무실(925호)

#### ● 면담내용

- 카자흐 정부의 농업 진흥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으며 과수, 밀, 축산 등 천연 상태 생산에 의존, 품종개량 미흡, 생산기술은 크게 낙후되어 있음
  - 고품질제품은 인근 중국으로부터 수입
- 14개 지방정부는 농지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있고, 농촌지도소 등에서는 감자등 품종개량을 시도하는 하나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실적거양에는 한계를 보임
- 바이오에탄올 회수율은 감자47%, 목화줄기7%로 큰 차이가 있으나 목화를 사용중 (중국업자들의 로비때문)

- 7년동안 농업부문투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본 결과 현지인과의 신뢰만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함.
  - 인간적 관계형성이 가장 중요한 해외진출 요인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차원 및 개인적 노력이 필요함
- 한국기업은 품종개량, 시설현대화, 농산물가공기술(특히 밀), 농기계 등 분야에 참여 및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이곳 정부는 이유식 생산을 못하여 유럽산 제품·수입사용하나 알레르기반응으로 고생
-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 정부에서 해외개발사업 계획수립시에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주길 희망
  - 대상자 선정시 주재국 정부와 합작등 형태로 투자·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우대요망
  - '08년중 해외자원조사지역에 카자흐 1개소 배정요망
  - 한국은 카자흐 고려인에게 5년 노동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카자흐는 한국진출 임직원에게 1년 노동비자 발급, 외통부에 형평성 제기 요망하였으며 「타지키스탄 정부」에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함
  - 귀국후 정책에 참고 할 것을 답변하였으며, 외교적 문제는 외교관 직원에게 수령한 의견을 전달하였음



4. 4(금) 카자흐 알마티 시내 사무실(왼편 안쪽 사람이 우서환), 의견청취

#### 4. 주요성과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 ● 주요성과

-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리 농업부가 처음 면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양국간 MOU 체결에 기본적 합의 도달
- 농업관련 주요협력사업 추진 토대를 구축
  - 국내초청연수 및 국내 전문가 현지과견 등 협력관계 증진
  - 필요한 농업관련기술 제공(예 : 관개개발, 시설개보수, 염해방지, 수확후 관리 기술 등)을 통한 신규사업 개척 토대 마련
- 해외농장 개발 등 자원확보를 위한 진출가능성을 진단해 봄
  - 농지의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있어 투자에 제약도 없으나

- 이익의 환수 애로, 지역언론의 부추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지가 등 상승 우려 대비 필요
- 생산성이 저조한 직접영농 참여·투자에 비해 가공, 유통분야에 진출하여 계열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정서상 단기간에 자국의 필요한 자원확보를 위한 외부의 진출에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평 가

-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식량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한국농업의 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 관계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의 중앙아시아지역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우리 경제수준과 국가위상에 걸맞는 해외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기술력 등에서 격차가 있는 이들 국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인점을 인지할 점이 돋보임
-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가공·물 관리기술의 해외진출 계기 조성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에 상호 인식을 같이함
-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바탕 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국 주요일반현황

구 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 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면 적(km <sup>2</sup> )	447,400	87,000	2,720,000	488,000
인 구(만명)	2,660('07.9현재)	800('05.9현재)	1,514('06.1현재)	500('06.1현재)
수 도	타슈켄트	바쿠	아스타나	아슈하바드
언 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아제르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투르크어 러시아어
종 교	이슬람(88%)	이슬람(88%)	이슬람(70%)	이슬람(70%)
1인당 GDP(\$)	492	2,336	3,690	1,423
화폐 단위	1USD=1,270UZS (숨) ('08.4현재)	1USD=0.83Manat (마넛) ('08.4현재)	1USD=124Tange (탱게) ('08.4현재)	1USD=19,800Manat (마넛) ('08.4현재)
주요산업	제조업, 농업	제조업, 농업	광산업, 가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경지비율 (전국토대비)	목초지 54% 농경지 11%	목초지 30% 농경지 23%	목초지 69% 농경지 8%	목초지 65% 농경지 4%
연평균강수량 (mm)	206	447	250	161
수입농산물	쌀, 설탕, 차	밀, 설탕, 차	설탕	설탕, 담배
수출농산물	면화, 포도, 밀	면화, 식물성오일	면화, 밀	면화, 밀

# FOODEX JAPAN 2008 참관기

## ['08.3.11~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주현정박사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비록 네 명의 해외연수단이 2박 3일간 동경 식품박람회를 관람한다는 같은 목적으로 여정에 나섰지만, 네 명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은 다를 것이다. 함께 한 일행들은 한 명은 꽃에, 한 명은 버섯에, 한 명은 쌀과 감귤에, 한 명은 한국과 일본의 식품산업 전반에 관심이 높았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느끼고, 자의와 타의에 의해 쉽게 왜곡되어져 버리는 하나, 나의 주관적이고 짧은 감상이 해외연수단의 일정을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얽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할 따름이다.

### 1. 첫째날

#### ● 서울 → 동경

동경이 초행길은 아니었지만 내게 첫 해외출장길이었다. 리무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 도착한 인천공항은 멀게 느껴졌다. 이번 연수는 식품환경신문 주최로 총 18명의 식품관련단체가 참여하였다. 까다로운 인천공항의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11시 50분 경 비행기를 탑승하여 2시간 반이 지나 나리타공항에 도착

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공항은 분주하지 않았고 날씨도 한국에 비해 따뜻하고 청명했다. 첫날은 먼저 공항 근처의 대형마트에 방문하기로 했다.

### ● JUSCO

JUSCO는 일본 최대 유통회사인 AEON의 자회사로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매장이다. 「EVERYDAY LOW PRICE」라는 모토로 「언제 손님이 내점하여도 가장 싸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정책을 추구한다. 1975년 창립하였으며,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에 본사를 두고 1985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홍콩, 중국, 태국, 대만 등으로 진출하였다.

매장을 둘러보니 BOOK-OFF라는 할인 서점, 완구점, 레코드점, 옷가게, 생활용품가게, 음식점, 커피숍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SUPERMARKET이라고 적혀 있는 식품코너에 갔다. 우리나라의 백화점, 대형마트의 식품매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제품포장이 깔끔하고 화려하며 소포장 되어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녹색 사과에는 연두색 포장지, 빨간 사과에는 붉은 포장지를 쓰고 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 점은 마지막 날 방문한 오타도 매시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는데 농산물을 담은 상자가 핑크색, 초록색 등 다양해 시장을 화사해 보이게 했다.



일본 최대 유통회사인 AEON의 자회사인 JUSCO

다. 한편, 상품의 포장 단위도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과의 날개 판매와 멜론을 반으로 쪼개어 속을 털어내고 조각을 내어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 마트에서 반쪽 양배추, 여름에는 반쪽 수박을 보았지만 멜론을 반으로 나누어 조

각을 낸 것은 처음 보았을 뿐더러 상품의 컨셉이 소비자 편이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이드 선생님 말씀이 한국이 일본의 식품매장 전시법, 포장기법을 많이 모방하여 한국과 일본의 마트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본의 냉장고는 한국 처럼 크지 않아 일본의 소비자는 먹을 만큼만 구입한다고 했다.



JUSCO의 식품매장 전경

둘째, 관련 있는 상품을 같이 진열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마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데 생선회 코너에 초고추장이 곁들여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 채소코너에 가니 채소와 그 채소를 가루나 즙으로 만든 가공품이 소포장 되어 같이 판매되고 있었다. 관련된 상품, 보완이 되는 상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다른 상품코너로 가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또한 상품의 겉포장에 이 재료를 활용한 음식 사진을 담아 조리법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김의 경우 겉 포장지의 사진에 여러 재료를 넣은 김밥과 마끼를 실어 식품조리의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었다.



소포장 손질 과일



과일 색깔의 포장지로 날개 포장

셋째, 조리 목적에 맞게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점이다. 특히 수산물 코너에서는 고등어 등 생선 요리를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손질하였을 뿐 아니라, 소스별로 고기를 재워두고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미국 USDA의 일본 식품소비 동향 자료를 보면,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수산 소비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일본의 수산 식품의 발달이 다양한 조리법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판매방식도 다양해졌을 것 같았다.

한국의 신라면과 도시락용 돌김이 판매되고 있어 반가웠다. 일본의 김은 양념을 하지 않은데 반해 우리나라 김은 기름과 소금으로 양념이 되어 있고 맛있어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식품의 주 판매 대상이 현지 교민 위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형마트에 입점이 된 것을 보면 수요도 꽤 크리라 짐작된다.

젓갈류 옆에 김치도 보였다. 한국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붉은 김치가 왜 이리 반가운지. 김치가 일본 시장에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김치의 대중성을 입증해주는 것 같았다. 그 밖에 쌀, 양념류, 장류, 음료 등의 매장을 둘러본 후 처음 들어왔던 신선과일 코너를 더 둘러보았다. 감귤의 원생지가 일본이라서 그런지 일본의 감귤은 우리나라 귤과 모양도 비슷하고 종류도 더 많았다.

나중에 일행에게 귤을 얻어 먹어보았는데 고작 2개를 먹어보고 일본의 모든 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귤 맛이 한국의 것과 유사하지만 좀 더 단 것 같았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시는 외삼촌께 여쭙보니 일본의 귤은 달고 제주의 귤은 새콤달콤하단다. 과일은 단 게 좋아 보이지만 단 것은 금방 물린다고 한다. 오히려 신맛이 있는 제주감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매장을 나오면서 여러 케이크와 화과자, 초콜릿, 만주 등 예쁜 디저트용 빵을 구경했다. 마침 화이트데이 전이라 선물용 사탕과 초콜릿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의 공정무역 꽃, 생산자 얼굴이 그려진 비닐로 포장된 꽃이 기억에 남는다.

## ● 이 후

JUSCO 방문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예정된 숙소로 향했다. 짐 정리를 간단히 마치고 네 명의 우리 연수단은 숙소 근처 선술집에서 담소를 나눴다. 2년 전 혼자 동경과 교토를 여행했을 때는 이방인의 고독과 또 다른 나를 만나는 반가움, 새로운 장소와 사람에 대한 신비감으로 긴장이 되었었다. 반면, 이번 여행에서는 낯익은 인연들과 함께 해서인지, 내 뒤에서 동료, 친구, 연인과 담소를 주고받는 일본인들의 목소리가 한국의 왁자지껄한 술집에서 일본 드라마를 크게 틀어 놓은 것처럼 들려 내가 있는 곳이 일본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오늘 JUSCO를 방문한 후기, 내일 박람회 일정 등을 계획하고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 2. 둘째날

### ● FOODEX JAPAN 2008

드디어 식품정책연구단의 임무를 달성할 날이다. 떠나기 전 정 모 박사님께서서는 출장을 가기 전에 미리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셨다. 출장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는 것인지 말이다. 나는 쌀, 김치, 감귤에 대해서는 농치지 말자고 다짐했다. 9시 50분 경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 도착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여서인지 전시회장 앞은 인터넷으로 예약한 접수권을 티켓으로 바꾸려고 기다리는 전 세계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한국, 중국의 관람객이 많아 보였다.

FOODEX JAPAN 2008은 제33회 국제식품·음료전으로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아시아·환태평양지역 최대 규모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식품·음료 전시회라고 한다. 1976년 부터

개최되어 온 전시회는 상담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 업계 관계자 전용전문행사이며, 같은 기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는 제36회 국제호텔·레스토랑 전시회, 제29회 일본푸드·캐터링 전시회, 제4회 주방설비기기 전시회가 열려 식품박람회에서 식품 관련 식자재 및 서비스까지 전시 규모가 확장되었다. (사)일본능률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서 열린 FOODEX JAPAN 2008

협회, (사)일본호텔협회 등 6개의 식품, 관광, 레스토랑 관련업체가 주최하였으며, 외무성 및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치바현, 치바시, 일본무역진흥기공(JETRO) 등의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전시회의 규모는 2008년 2,412업체, 3,461부스(28,973 $m^2$ )가 참가하였으며 이 중 일본이 810업체, 1,272부스(9,272 $m^2$ ), 해외 1,602업체, 2,189부스(19,701 $m^2$ )가 참가하였다. 참여업체는 2007년도에 2,425사, 3,479부스(29,183 $m^2$ )에 비해 감소했으나 관람객 수는 2007년 95,719명에 비해 2008년에는 96,328명으로 증가하였다.

참가국은 세계 65개국으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지역 등 다양하며 농수축산물 가공품, 조리·가공식품, 밀가루·면류, 과자·디저트, 조미료·향신료·유지, 시럽·벌꿀·스프레드류, 알코올음료, 물·소프트드링크, 커피·차·음료원료, 건강식품, 유기농·자연식품, 그 외 식품관련 제품 등이 참여한다.

참가대상 업체는 농·수·축산 생산자 및 단체, 푸드 서비스, 중간유통, 제조회사, 소매업체, 관공청, 관련 기계 제조회사 등이다.

전시회는 여러 이벤트와 강연회, 시식회 등을 준비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 올해 주요 행사는 More Vege+, Sweets&Tea·Coffee, 전국식품박람회가 있으며 More Vege+는 소비자의 증가하는 건강지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야채가 있는 음식 공간'을 제안하여 신품종야채, 신선야채, 냉동야채, 야채 가공품, 조미료·토핑류, 야채를 사용한 제품 및 식재 등 전시, 강연, 조리실연을 하여 소비자의 수요 환기, 판매 촉진으로 파급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Sweets&Tea, Coffee에서는 유행이 되고 있는 일본과 서양과자, 제과재료, 드링크류, 커피와 차류를 집중 전시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며 전국식품박람회는 지방의 전 식재료가 모이는 인기 있는 행사로 전국의 브랜드 및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일행은 10시 20분 즈음 티켓을 받고 입장할 수 있었다. 전시장은 총 1관부터 8관까지이며 1관부터 4관까지는 국제전시장, 5관부터 8관까지는 일본의 상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입구를 들어서자 한 층 아래로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장처럼 부스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한국의 지역별 브랜드와 상품이 전시되어 있던 한국관

한국관은 1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지역별로는 젤리, 술, 피클, 버섯업체가 모여 만든 강원도 양양의 황금송이, 양평 버섯, 전라북도 추어탕, 유자쿠키, 김쿠키, 김치쿠키, 남원의 주몽 복분자, 황진이 오미자술, 부산의 인삼김치, 인삼오일, 제주의 한라봉차, 영골차 등 각 지역별 브랜드와 상품이 전시되었다. 업체별로는 도라지 사탕,

아침대용 시리얼, 메밀전, 김치전, 녹두전, 고추장, 흑마늘 가공 상품, 전통주 등 자랑스러운 상품을 뽐내고 있었다. 시식회도 활발히 진행 되었는데 한 김치판매 부스에서는 불고기를 구워 백김치에 싸 주기도 하고 김치를 직접 만드는 시연회도 있어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일본은 큰 규모와 신기한 음식, 다양한 시식행사 등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전국의 일본 특산물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장터는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에 온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상추를 포장하는 방법이나 농산물을 담고 운반하는 모양 등 배울 점도 많았다.

나중에 팸플릿을 정리하다 보니 안에 상추 및 쌈채소 포장용 비닐이 들어있었다. 납작한 정사각형 비닐의 양끝을 모아 정사면체로 만들고 봉하여 실제 사용 시에는 모서리의 나머지 양끝을 잡아당겨 포장이 양 옆으로 나뉘어져 내용물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상추와 채소를 섞어서 팔 때 일일이 모양을 맞추고 겹쳐서 납작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장류, 신선과일, 신선채소, 레토르트 식품, 녹차, 여러 가공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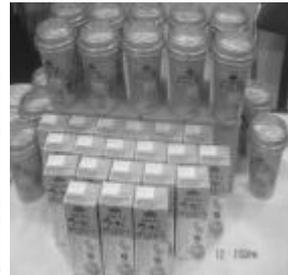
감귤은 종이팩, 플라스틱 컵, 캔, 병에 담겨 주스로도 판매되고 껍질 벗긴 귤을 덩어리째 통조림으로 만드는가 하면, 잼, 차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도 판매되었다. 감귤주스를 시음하는데 맛이 독특했다. 약간 둔한 것 같은 단맛이 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이 맛은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시장에 팔지 못하는 상하거나 상품성이 낮은 귤을 설탕에 절여 내가 콜라 먹고 싶다고 조르면 할머니표 감귤주스를 밥그릇에 부어 주시고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시던 그 때 그 맛이였다. 감동이였다. 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감귤주스는 이 맛이 안 날까? 한국에서 먹는 오렌지 맛에 가까운 감귤주스와는 확실히 달랐다. 감귤 함유량에 따라 맛이 차이가 나는 건지 한국에 가서 꼭 확인하리라 다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감귤주스는 50%가 대부분이라 그래서 맛에서 차이가 날까? 삼촌께 여쭙봤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삼다수에서 100% 감귤주스를 판매한다고 하셨다. 주말에 동생과 마트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 “언니, 100% 있어!” 하며 내게 건네준다. 얼른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먹어봤더니 흠...맛이 확실히 어릴 때 그 맛에 가깝긴 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다. 오렌지 주스와는 다른 좀 더 개성 있는 감귤 주스가 탄생하길 빌어본다.

한 코너에는 쌀 가공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쌀로 만든 다양한 식품, 아이스크림, 빵, 쌀가루, 쌀 식용유, 레토르트 쌀, 쌀국수, 쌀과자 등이 있었는데 특히, 쌀 식용유와 아이스크림은 너무 신기했다.



눈길을 사로잡은 다양한 감귤



가공제품과 포장 방법

미국은 육류, 마른 과일, 어린이용 사탕류를 주로 선보였고, 우리나라에도 시판이 되고 있는 칼로스 쌀, LUNDBERG FAMILY FARMS의 유기농 쌀 등이 선보였다. 칼로스 쌀은 리조또용 쌀 뿐 아니라 쌀샐러드, 쌀스테이크, 쌀스프, 쌀햄버거, 쌀로 만든 디저트, 요리의 사이드 메뉴로 으깬 감자나, 통고구마가 아닌 쌀야채 볶음밥 등의 레시피를 선보였다.



쌀 식용유, 쌀가루, 빵 등



다양한 쌀 가공품

LUNDBERG FAMILY FARMS는 USDA의 유기농 인증 뿐 아니라 JAS인증까지 받아 일본 수출에 매우 적극적이며 쌀 리조또, 쌀 케이크, 쌀 파스타, 쌀 시럽, 쌀 칩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멕시코관은 육류를 주로 선보였는데 캐릭터인형 옷을 입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민속춤 공연을 선보여 전시회장을 축제분위기로 만들었다. 중국과 대만은 1차 산물, 1차 가공식품을 주로 선보였다. 뉴질랜드 DELICA는 열대과일을 많이 선보였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일도 있어서 중학교 영어시간처럼 순진하게 뉴질랜드 사람에게 "what is this?"를 연발했다. 올리브처럼 조그맣게 생긴 Kiwi Berry, 키위모양의 자주색깔로 속이 조금 비고 무화과와 비슷한 Passionfruit, 키위모양의 진한 초록색을 띤 단단한 Feijoas는 씹는 맛이 단단하면서도 특유의 시큼한 향이 있었다.

터키관에는 쌀 상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니 일본에 대한 수출 관세가 높고 품질 경쟁력도 없어 일본으로의 쌀 수출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니 65개국에 아무 상품이나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수출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러웠다.

### ● 미츠코시 백화점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긴자의 미츠코시 백화점의 식품매장을 잠깐 방문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1673년 (연보원년) 창업하여, 2003년 (헤세이15해) 9월1일 회사를 설립하였다. 2008년 2월 1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374억 400만 엔 종업원은 6,714명, 국내 15점포, 해외 22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매출이 7,479억 8,200만 엔이며 2003년 9월 1일, 주식회사 미츠코시는, 주식회사 나고야 미쓰코시, 주식회사 치바 미쓰코시, 주식회사 카고시마 미츠코시, 주식회사 후쿠오카 미츠코시의

백화점 사업 5회사에 의한 신설 합병을 실시해 「주식회사 미즈코시」로 새로이 탄생한다.

긴자 미즈코시 식품매장은 지하 1, 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하 1층은 일본, 서양 과자, 반찬·신선·빵·해산물 조림·채소 절임, 일본과 서양주, 빵, 커피 등이 있으며 지하 2층은 케이크 및 과자·홍차·빵, 주스 등이 있고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음식점과 카페가 있어 일본에서 식품매장으로 유명하다. 도시락과 디저트가 발달한 일본답게 갖가지 생선으로 만든 초밥, 덮밥과 양증맞게 생긴 조그만 케이크와 빵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유혹했다.

### 3. 셋째날

#### ● 오타 도매시장

달콤한 아침잠은 한국에 들어가 여독을 풀 때 이용하자며 미루고 무거운 몸을 달래어 오타도매시장으로 향했다. 오타 도매시장은 도쿄도내의 최신 시장으로 수산물, 청과물, 화훼를 취급하는 종합시장이다. 동경의 11개 도매시장 중 하나로 간다, 에바라, 오오모리의 3개 도매시장을 합쳐 1989년 5월에 완공하였다. 수산물의 츠키지 시장처럼 청과물에서는 시설과 취급량의 규모화로 일본 최대의 시장이다. 부지면적은 2006년 기준 386,426㎡, 건물면적이 276,519㎡이며 취급물량은 2005년 기준 청과 3,239톤/일, 화초 324만개/일 (절화환산), 수산 105톤/일이다. 청과의 취급금액은 8억1천3백 만엔/일, 화초가 1억7천만 엔/일, 수산 8천9백 만엔/일이다. 경매시간은 수산이 새벽 5시 40분, 야채 6시 50분, 과일과 절화가 아침 7시이다.

운이 좋게도 시장과 숙소가 2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어 일본 가서 절대 하지 말라던 택시타기를 하게 되었는데 시장은 하네다 공항과 가까워 도로에는 대형 트

력과 운송용 차들이 썩썩 달리고 있었다. 동경 시내의 상가와 식당, 아파트와 맨션, 깔끔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신사. 주로 이런 부분만 보았는데 시장 내부의 트럭과 조그만 전동차와 상자들이 넓은 주차장에 가득한 모습이 낯설었다. 사무동 2층으로 견학로가 마련되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며 입구에서 받은 시장안내도는 한글도 같이 적혀있었다.



도쿄도내 최신시장으로 수산물, 청과물, 화훼를 취급하는  
오타 도매시장.

긴 터널 같은 2층 건물에서 발밑에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경매장을 찾아갔다. 공항에서 큰 통유리를 통해 활주로의 비행기를 볼 수 있듯이 여기도 큰 유리창을 통해 시장 내부를 볼 수 있었고, 안으로 더 들어가니 2층에 난간을 설치하여 직접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층에서 보니 1층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농산물을 운반하고, 일일이 상품을 검사하고, 한쪽에 쌓는 등 마치 일개미를 보는 것 같았다. 말보다는 손짓과 눈치가 의사소통에 더 중요한 곳 같았다.

아직 경매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신호가 오가고 곧 그 무리는 흩어졌다. 조금 후 다른 곳을 보니 그곳도 마찬가지로 조금 웅성웅성하며 무리를 이루더니 곧 흩어졌다. 소규모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다.



오타 도매시장의 경매시간

드디어 경매시간이 되었다. 경매참가자들은 미리 가져온 상품의 견본을 경매대 위에 올려놓고 그 뒤 좌판에 실제 상품들을 진열하였다. 경매대 앞으로는 계단식 의자에 중도매인들이 앉아 있고 경매인들은 경매에 앞서 제품을 검사하였다. 오이, 딸기, 귤의 경매가 차례로 이루어졌는데 귤은 경매인들이 실제로 먹어 보기도 하였다. 경매는 짧은 시간

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경매인이 세 명, 두 명이 옆에서 적고 중도매인들은 가격흥정을 하였다. 5분 후 오른쪽에서 멜론의 경매가 이루어졌다. 컨베이어 한 편에 멜론 상자가 쌓여 있었고 경매가 시작되니 컨베이어 벨트위에 상자가 차례로 올려지고 상자 당 경매가 이루어졌다. 낙찰된 멜론은 각 중도매인들을 표시한 팻말 앞에 선적되었다. 이렇게 짧은 순간 분주히 경매가 이루어졌다.

시장은 음식 찌꺼기 등 지저분한 모습이나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였으며 견학 전용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이 마련되어 앞을 보지 못해도 경매장에 대한 안내문을 읽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밝았는데 이는 상품의 포장과 운반이 규격화되고 깔끔하며 상자의 색상이 화려하기 때문 인 것 같다.

### ● 빅사이트 전시장

경매가 끝나자 부리나케 숙소로 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체크아웃을 했다. 나머지 전시장을 남겨둔 터였다. 빅사이트 전시장은 동경만과 가까워 바람이 많이 불었다. 오늘은 어제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주로 식자재와 케이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전시회라 어제처럼 끽대며 팽플릿을 챙기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부담은 없었다. 입장하자 처음 보이는 곳이 일본 도자기로 만든 그릇들이었다.

제대로 하는 요리는 참치김밥과 제육볶음이 전부이지만 컵과 그릇에 대한 욕심은 많은 편이다. 언젠가 지인의 집에 소개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풀빛과 황색의 도자기 접시에 담겨진 파란 나물과 알록달록한 요리들이 어찌나 먹음직스럽고 근사하던지. 사모님이 시골에서 직접 그릇을 사 오신다고 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그를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욕심을 부리나 보다.

전시장에는 목욕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취향에 맞춰 1인용 샤워기, 욕조, 족욕기 등 스파 관련 제품, 침대, 의자 등 가구류, 기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컵, 접시, 그릇들, 1회용 포장지, 도시락 안에 넣는 1회용 포장지, 식품, 레스토랑 관련 책, 빵 굽는 기계, 초밥 만드는 기계, 당근 깎는 기계, 커피메이커, 튀김기 등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린나이를 비롯해서 소수업체가 참여했다.



의류, 식품류 등 다양한 상품을 파는 우에노 아메요코 시장

### ● 우에노 아메요코(Ameyoko) 시장

빅사이트 전시장 관람을 마치고 공항가기 전에 잠시 아메요코 시장에 들렀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남대문처럼 잡화를 파는 큰 시장이 없지만 굳이 뽑자면 아메요코 시장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아메요코 시장은 우에노역과 오카치마치역 사이의 야마노테선을 따라 있는 변화한 시장으로 약 400m정도에 걸쳐 있으며 400채 이상의 점포로 구성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제 상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 그 기원이며 수입 잡화, 해산물, 과자를 비롯해 의류, 신발, 귀금속 등 상품이

다양하며 한국의 남대문, 이태원 시장과 비슷하다. 아메요코 센터 빌딩 지하의 식품 매장에서는 인도 피클이나 향신료, 타이 소스, 중국 조미료, 인도네시아 커리 믹스 등 각종 아시아와 아프리카 음식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김치를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도 모여 있다.

이곳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물건이 전시되어 있어 일본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주 들른다고 한다. 그 규모가 어찌나 크고 사방으로 길이 나 있어 길을 잃기가 쉽다고 한다.

#### 4. 에필로그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 같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같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의 다양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자국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일본의 농산물 분야는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품질, 위생, 포장에 주력하고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를 자발적으로 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도 다양한 방식의 조리법(크기, 가공방식, 양념유무 등)과 창의력으로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국내 상품인 신라면, 김 등 한국제품의 입점은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알려줄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수출에 자신감을 불어일으키는 것 같다.

박람회に参加한 65개국의 경쟁력 있는 국가들을 보며 이들이 우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 뿐 아니라 해외로의 농산물 수출 증대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경쟁자이긴 하나,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산물을 수입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시장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장점은 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자라고 말이다. 이러한 경쟁국과 어깨를 겨루려면 우리 상품의 개성을 유지하되 수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부합하는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객만족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몹시 흔들렸다. 10분간의 혼돈이 지나자 비행기는 고도를 상향으로 조정하여 안정 기류에 접어들었다. 우리 농업도 지금은 아니 10년 전부터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 진동은 당분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주위를 정비하고 목표를 상향하여 정진한다면 이 진동은 점차 안정적인 기류로 바뀔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해외농업 · 통상 기사 요약

### 1. 북미지역 농업관련 보도내용

통상협력과 사무관 장현경

### 2. THE NEW YORK TIMES ('08. 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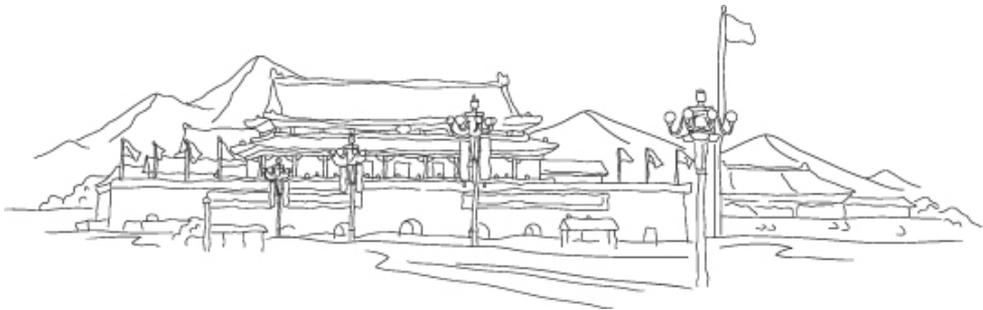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마라 나는 아홉살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것이 없다고 탓하지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 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기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 징기스칸-



## 북미지역 농업관련 보도내용

- 2008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의 농업 분야 중심으로 -

통상협력과 사무관 장현경

지난 3.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8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표했다. 금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무역장벽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접근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OIE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부위의 미 쇠고기 품목에 대해 완전 개방하도록 우리나라에 계속 촉구할 것이며 특히 미 의회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미 FTA에 대한 의회 승인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본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가금류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지역화 개념 수용을 촉구하였다. 지역화란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비발생 상태가 유지되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동 지역으로부터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마다 발행하는 보고서로 각국의 수입정책·수출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의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실질적 장벽이 되는 교역상 대국의 법·정책·관행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The New York Times

(’08.4.14)

## In Lean Times, Biotech Grains Are Less Taboo

Soaring food prices and global grain shortages are bringing new pressures on governments, food companies and consumers to relax their longstanding resistance to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In Japan and South Korea, some manufacturers for the first time have begun buying genetically engineered corn for use in soft drinks, snacks and other foods. Until now, to avoid consumer backlash, the companies have paid extra to buy conventionally grown corn. But with prices having tripled in two years, it has become too expensive to be so finicky.

“We cannot afford it,” said a corn buyer at Kato Kagaku, a Japanese maker of corn starch and corn syrup.

In the United States, wheat growers and marketers, once hesitant about adopting biotechnology because they feared losing export sales, are now warming to it as a way to bolster supplies. Genetically modified crops contain genes from other organisms to make the plants resistance to insects, herbicides or disease. Opponents continue to worry that such crops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and that they might pose risks to health and the environment.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price and supply concerns have people thinking a little bit differently today,” said Steve Mercer, a spokesman for U.S. Wheat Associates, a federally supported cooperative that promotes American wheat abroad.

The group, which once cautioned farmers about growing biotech wheat, is working to get seed companies to restart development of genetically modified wheat and to get foreign buyers to accept it.

Even in Europe, where opposition to what the Europeans call Frankenfoods has been fiercest, some prominent government officials and business executives are calling for faster approvals of imports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They are responding in part to complaints from livestock producers, who say they might suffer a critical shortage of feed if imports are not accelerated.

In Britain, the National Beef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cattle farmers, issued a statement this month demanding that “all resistance” to such crops “be abandoned immediately in response to shifts in world demand for food, the growing danger of global food shortages and the prospect of declining domestic animal production.”

The chairman of the European Parliament’s agriculture committee, Neil Parish, said that as prices rise, Europeans “may be more realistic” about genetically modified crops: “Their hearts may be on the left, but their pockets are on the right.”

With food riots in some countries focusing attention on how the world will feed itself, biotechnology proponents see their chance. They argue that while genetic engineering might have been deemed unnecessary when food was abundant, it will be essential for helping the world cope with the demand for food and biofuels in the decades ahead. Through gene splicing, the modified crops now grown — mainly canola, corn, cotton and soybeans — typically contain bacterial genes that help the plants resist insects or tolerate a herbicide that can be sprayed to kill weeds while leaving the crop unscathed. Biotechnology companies are also working on crops that might need less water or fertilizer, which could have a bigger impact on improving yield.

Certainly any new receptivity to genetically modified crops would be a boon to American exporters. The United States accounted for half the world’s acreage of biotech crops last year.

But substantial amounts of corn, soy or canola are grown in Argentina, Brazil and Canada. China has developed insect-resistant rice that is awaiting regulatory approval in that country.

The pressure to re-evaluate biotech comes as prices of some staples like rice and wheat have doubled in the last few months, provoking violent protests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Cameroon, Egypt, Haiti and Thailand. Factors behind the price spikes include the diversion of crops to make biofuel, rising energy prices, growing prosperity in India and China, and droughts in some regions — including Australia, a major grain producer.

Biotechnology still certainly faces obstacles. Polls in Europe do not yet show a decisive shift in consumer sentiment, and the industry has had some recent setback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France has banned the planting of genetically modified corn while Germany has enacted a law allowing for foods to be labeled as “G.M. free.”

And a new international assessment of the future of agriculture, released last Tuesday, gave such tepid support to the role genetic engineering could play in easing hunger that biotechnology industry representatives withdrew from the project in protest. The report was a collaboration of more than 60 governments, with participation from companies and nonprofit groups,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and the United Nations. Hans R. Herren, co-chairman of the project, said providing more fertilizer to Africa would improve output much more than genetic engineering could. “What farmers really are struggling with are water issues, soil fertility issues and market access for their products,” he said.

Opponents of biotechnology say they see not so much an opportunity as opportunism by its proponents to exploit the food crisis. “Where politicians and technocrats have always wanted to push G.M.O.’s, they are jumping on this bandwagon and using this as an excuse,” said Helen Holder, who coordinates the campaign against biotech foods for Friends of the Earth Europe. G.M.O. refers t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Even Michael Mack, the chief executive of the Swiss company Syngenta, an agricultural chemical and biotechnology giant, cautioned that the industry should not use the current crisis to push its agenda.

Whatever importance biotechnology can play in the long run, food shortages are making it harder for some buyers to avoid engineered crops.

**The main reason some Japanese and South Korean makers of corn starch and corn sweeteners are buying biotech corn is that they have dwindling alternatives.** Their main supplier is the United States, where 75 percent of corn grown last year was genetically modified, up from 40 percent in 2003.

“We cannot get hold of non-G.M. corn nowadays,” said Yoon Chang-gyu, director of the Korean Corn Processing Industry Association.

But the tightening global supply has made it harder to get nonengineered corn from elsewhere. And as corn prices soar, millers and food companies are less able to pay the surcharge to keep nonengineered corn separate from biotech varieties. The surcharge itself has been rising.

Mr. Yoon said non-engineered corn cost Korean millers about \$450 a metric ton, up from \$143 in 2006. Genetically engineered corn costs about \$350 a ton.

In Europe, livestock producers say that regula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crops could choke feed supplies at a time when they are already reeling from higher prices. Even after a new genetically engineered variety is approved for growing in the United States, it might take several years for Europe to approve it for import.

Moreover, European rules require an entire shipment of grain to be turned back if it contains even a trace of an unapproved variety. Such a problem last year disrupted exports of corn gluten, a feed product,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Feed makers and livestock producers want faster approvals and a relaxation of the rules to allow for trace amounts of unapproved varieties in shipments.

Even in the United States, where genetically engineered food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e wheat industry has had to rethink its reluctance to accept biotech varieties. Because about half of America's wheat crop is exported, farmers and processors feared foreign buyers would reject their products. Facing resistance from American farmers, Monsanto in 2004 suspended development of what would have been the first genetically modified wheat.

But some farmers and millers now say that the lack of genetically engineered wheat has made growing the grain less attractive than growing corn or soybeans. That has, in turn, contributed to shrinking supplies and rising prices for wheat.

Milling & Baking News, an influential trade newspaper in Kansas City, Mo., said in an editorial that companies that used wheat were now paying the price for their own "hesitancy, if not outright opposition" to biotechnology.

Su-hyun Lee in Seoul, South Korea, and Yasuko Kamiizumi in Tokyo contributed reporting.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에서는 「국제농업소식」 지를 발간하여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림수산식품관련 단체 및 협회,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등 소식지의 내용이나 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실린 내용들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국제농업소식

▶ 발행처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총괄과  
Tel : (02)500-1858 Fax : (02)504-6659 www.mifaff.go.kr  
▶ 인 쇄 : (주)경성 Tel : (02)503-3223 Fax : (02)503-8338